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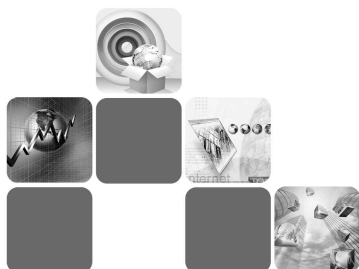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2023-7호



ISSN 2982-8317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31

1. 인도 - 전선 및 광케이블 32
2. 카메라 모듈 38
3. Ex-Briefing 46

III. 부록 51

1. ICT 생산 통계 52
2. 2023년 6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53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60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8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9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3.6월 ICT 수출은 160.6억 달러(△22.1%), 수입은 114.5억 달러(△12.3%) 기록

- (수출)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심리 위축, '22년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160.6억 달러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내림세
 - ※ '22.6월 ICT 수출은 206.0억 달러(6.8%↑)로 6월 기준 역대 최초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황을 기록
- 품목별로는 이차전지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등이 하락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수출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 체
전세계	89.9 (△27.9)	15.9 (△11.1)	7.8 (△18.8)	8.7 (△48.7)	9.3 (16.1)	160.6 (△22.1)
중국(홍콩)	49.7 (△29.8)	4.9 (△30.3)	3.3 (13.9)	2.7 (△25.2)	0.5 (3.5)	67.4 (△25.7)
미국	5.2 (△50.5)	0.1 (11.3)	1.0 (23.2)	2.2 (△73.8)	4.9 (59.5)	19.7 (△32.6)
일본	1.3 (7.2)	0.1 (△19.2)	0.1 (△23.2)	0.6 (△41.5)	0.4 (36.1)	3.7 (△10.3)
EU	2.3 (23.7)	0.5 (137.0)	1.3 (△58.9)	1.1 (△44.0)	1.5 (△24.1)	9.7 (△21.6)
베트남	10.4 (△19.6)	8.8 (△5.2)	1.2 (3.2)	0.5 (45.8)	0.2 (△69.5)	24.9 (△11.3)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2.3% 감소한 114.5억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하락
 - 이차전지(8.8억 달러, 59.9%↑) 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54.0억 달러, △19.3%), 컴퓨터 및 주변기기(10.8억 달러, △18.4%), 휴대폰(5.3억 달러, △16.8%), 디스플레이(4.0억 달러, △11.3%) 등은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24.9억 달러), 베트남(15.6억 달러), 미국(12.9억 달러), EU(3.6억 달러) 등 주요 국가에 대해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총 46.1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3년		2022년	
		6월P	상반기P	6월	상반기
수출	전체 산업	542.4 (△6.0)	3,073.0 (△12.3)	576.8 (5.3)	3,505.1 (15.6)
	ICT	160.6 (△22.1)	849.5 (△30.6)	206.0 (6.8)	1,224.6 (18.9)
수입	전체 산업	531.1 (△11.7)	3,336.1 (△7.7)	601.5 (19.3)	3,614.3 (26.4)
	ICT	114.5 (△12.3)	682.0 (△8.4)	130.5 (23.3)	744.2 (18.5)
무역수지	전체 산업	11.3	△263.1	△24.7	△109.2
	ICT	46.1	167.5	75.5	480.4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반도체 시장, '23년 메모리·비메모리 동반 하락으로 위축이 예상되나 내년 반등 기대

- (시장 전망) 메모리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메모리마저 역성장하면서 '23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5,25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Gartner, '23.6월)
 -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업체들의 투자 축소 등으로 메모리 부진이 심화. 또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비메모리도 반락하면서 올해 반도체 시장은 '19년(4,223억 달러, △11.3%) 이후 4년 만에 역성장을 예상
 - (메모리 반도체 : 850억 달러, △40.6%) PC·스마트폰 등 IT기기 수요 회복 지연, 빅테크 업체들의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서버용 수요 위축 등 전방 산업 부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황이 계속될 전망
 - ※ '23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6년(805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하회를 예상
 - 다만 글로벌 업체들의 감산 정책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 가속화, AI 시장 성장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D램 출시 등으로 '23.하반기엔 회복세에 접어든 후 내년에는 고성장(82.2%↑) 달성을 기대
 - ※ 올해 글로벌 HBM 수요는 2억 9,000만 GB로 전년 대비 약 60% 확대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약 30% 성장을 기대. 또한 올해부터 '25년까지 연평균(CAGR) 약 45% 성장을 예상(TrendForce, '23.6월)
 - (비메모리 반도체 : 4,409억 달러, △3.4%)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 이에 따라 전방 산업이 둔화되면서 파운드리 주문이 감소하는 등 하락 반전을 예상
 - ※ '23년 파운드리 시장 전망(Gartner, '23.7월) : (규모) 1,233억 달러, △5.6%, (설비투자) 568억 달러, △11.1%
 - 다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차량용 수요 확대, HPC(고성능컴퓨팅) 발전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등으로 내년엔 8.4% 증가를 달성하는 등 성장 가도에 진입할 전망

그림 1-1 |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3.6.

□ TSMC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개발에 지속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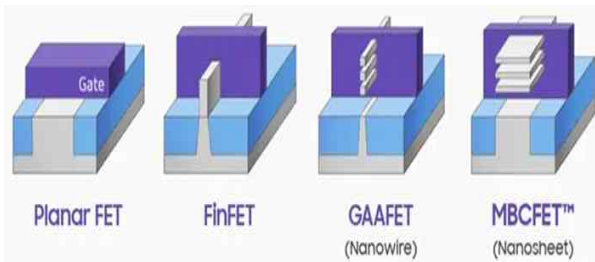
- 전 세계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던 파운드리 시장도 위축되면서 TSMC는 4년 만에 매출 및 순이익 하락을 기록
 -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업체들의 첨단 반도체 주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핵심 시장인 스마트폰·PC 등 IT기기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파운드리 시장은 둔화
 - ※ '23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1,232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역성장 전망(Gartner, '23.7월)
 - 이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하던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는 '23.2분기 매출이 4,808억 4,100만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1,817억 1,700만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하락하는 등 부진을 기록
 - ※ TSMC 매출은 '19.1분기(2,187억 400만 대만달러, △11.8%), 순이익은 '19.2분기(667억 7,600만 대만달러, △7.6%)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
 - 다만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AI 반도체 주문량 증가 등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예상 보다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엔 최신 공정인 3nm 수요 본격화 등에 따른 실적 회복을 기대
 - ※ 금융정보업체 레피티티브는 '23.2분기 TSMC 매출액 및 순이익을 각각 4,788억 3,000만 대만달러, 1,725억 5,000만 대만달러로 예상
 - 한편 AI·HPC·전장용 반도체 등 초미세 공정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23.하반기 파운드리 시장은 회복세에 진입한 후 내년 반등(13.2%↑)을 기대
 - ※ '23년 분기별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Gartner, '23.7월) : (1Q) △9.1% → (2QE) △13.4% → (3QE) △9.4% → (4QE) 9.5% ↑
- 삼성전자는 TSMC보다 앞선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양산을 계획하는 등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
 - 삼성전자는 '22.6월 전 세계 최초로 GAA(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nm GAA 1세대 (SF3E) 공정 양산을 시작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 면을 게이트(채널 전류 흐름을 제어)가 감싸는 기술로, 3개 면을 감싸는 기존 핀펫(FinFET) 구조 대비 고속 데이터 처리, 높은 전력 효율 등 성능이 고도화
 - 이후 '23.6월 4nm 핀펫 공정 대비 성능은 22%, 전력 효율은 34%, 로직 면적은 22% 개선된 MBCFET 공정을 적용한 3nm GAA 2세대(SF3)를 공개했으며 '24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
 - ※ MBCFET(Multi Bridge Channel FET)은 채널을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Nanosheet) 형태로 구현하고 여러 장 적층해 성능 및 전력 효율을 확대한 기술로 삼성전자가 특허를 보유
 - 또한 '25년 모바일용을 시작으로 '26년 HPC용, '27년 전장용으로 2nm GAA 공정(SF2) 양산 확대를 계획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



- 한편 TSMC는 '24년 핀펫 공정을 유지한 3nm 2세대(N3E) 공정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5년 2nm(N2)부터는 GAA 공정을 적용할 계획으로 애플 및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

※ 당초 TSMC는 2nm 공정 시제품 생산을 '24.상반기로 계획했으나, 올해 소량 생산을 진행하는 등 조기 착수를 통해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고객사를 선점할 계획

그림 1-2 | 공정별 트랜지스터 구조 및 삼성전자·TSMC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



(가) 공정별 트랜지스터 구조

		SAMSUNG	TSMC
2022	상반기	3nm 1세대 (GAA)	3nm 1세대 (FinFET)
	하반기		
2023			
2024	상반기	3nm 2세대 (GAA)	3nm 2세대 (FinFET)
	하반기		
2025		2nm (GAA)	2nm (GAA)
2026			
2027		1.4nm	
2028			1nm

(나) 삼성전자·TSMC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

자료 : 삼성전자 / 언론 자료 정리

- (참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질화갈륨(GaN) 파운드리 서비스를 계획하는 등 신소재를 활용한 화합물 반도체 시장도 공략할 예정

- 모바일 기기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기존의 전력 반도체 기술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제품으로 질화갈륨(GaN) 전력 반도체가 부상

※ 전력 반도체는 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변환·저장·분배·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PC·가전제품·자동차·태양광·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삼성전자는 '25년 데이터센터·자동차용 8인치(웨이퍼 크기) GaN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고객 다변화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며,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장비 투자도 확대할 예정

※ 고압·고온·고주파에 취약한 실리콘(Si) 전력 반도체의 약점을 극복한 GaN 전력 반도체는 고온 안정성, 고속 스위칭, 전력 절감 등 고성능·저전력 차세대 반도체로 전기차 등 자동차용 수요가 확대될 전망

- 한편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으로 활용처가 확산됨에 따라 '22년 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GaN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는 '26년 13억 3,000만 달러까지 확대되며 연평균(CAGR) 64.9%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망(트렌드포스, '23.7월)

※ 화합물 기반 전력 반도체 시장은 ('22년) 9억 8,000만 달러 → ('25년) 47억 1,000만 달러로 약 5배 성장을 예상

□ 美·中 반도체 패권 전쟁,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가세하면서 갈등이 격화

- 일본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을 시행하는 등 미국에 발맞춰 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도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계획하는 등 반발

- '23.7.23일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요한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포괄 허가 지역인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를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을 발효
 - ※ 일본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 방지가 목표라 발표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라는 견해가 존재
- 해당 조치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조장치, 반도체 원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장치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장비는 10~14nm 이하 로직 반도체 제조에 필수 요소
- 이에 따라 포괄 허가 지역에 미포함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시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
 - ※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2년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최대 수입국으로 양국 모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첨단 장비 외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
- 한편 중국이 '23.8월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통신·군사용 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본이 장비 수출 제한을 시작함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
 - ※ 반도체 외에도 갈륨은 LED,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제조에 사용

2) 수출 동향

□ '23.6월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시스템이 동반 하락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

- **(품목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 등으로 메모리 및 시스템 수출이 감소하면서 '23.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9% 하락한 89.9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전방 산업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년 6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1개월 연속 내림세
 - ※ 6월 기준 역대 상위 수출(단위 : 억 달러) : (1위, '22년) 124.8, (2위, '18년) 112.5, (3위, '21년) 112.3
 - (메모리 반도체 : 47.7억 달러, △38.8%)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 등 업황 회복 요인 작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요 부진 및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내림세 등으로 메모리 MCP·D램·낸드플래시·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 주요 제품이 감소하면서 하락을 기록
 - (시스템 반도체 : 37.8억 달러, △9.6%) 국내 주요 업체의 투자 확대에 따른 파운드리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패키징 등이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
 - 다만 '23년 중 가장 양호한 수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성능·고용량 반도체 수요 확대, 주요 업체들의 메모리 감산 등에 힘입어 점진적 개선을 기대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등 주요 국가 수출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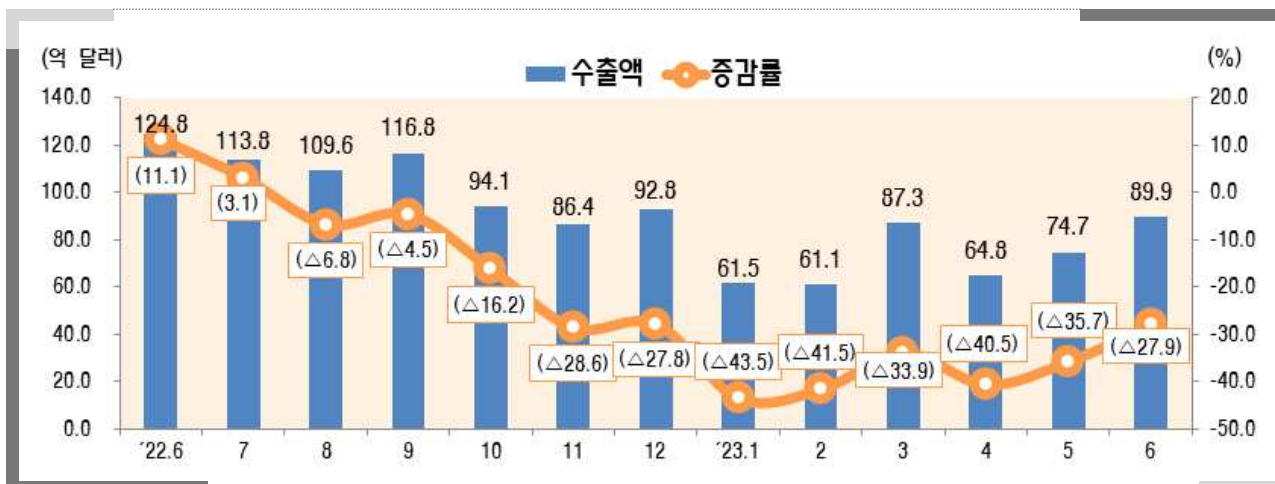
- 중국(홍콩 포함, 49.7억 달러, $\Delta 29.8\%$)은 메모리MCP·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Delta 35.3\%$) 감소와 더불어 시스템($\Delta 15.4\%$)도 반락하면서 12개월 연속 내림세 지속
- 베트남(10.4억 달러, $\Delta 19.6\%$)은 D램·메모리MCP·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 메모리($\Delta 26.6\%$)와 시스템($\Delta 16.0\%$)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
- 미국(5.2억 달러, $\Delta 50.5\%$)은 D램·메모리MCP 등 메모리($\Delta 58.6\%$)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스템($\Delta 38.1\%$)도 반락하면서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상반기
반도체	113.8 (3.1)	109.6 ($\Delta 6.8$)	116.8 ($\Delta 4.5$)	94.1 ($\Delta 16.2$)	86.4 ($\Delta 28.6$)	92.8 ($\Delta 27.8$)	61.5 ($\Delta 43.5$)	61.1 ($\Delta 41.5$)	87.3 ($\Delta 33.9$)	64.8 ($\Delta 40.5$)	74.7 ($\Delta 35.7$)	89.9 ($\Delta 27.9$)	439.3 ($\Delta 36.8$)
메모리	61.7 ($\Delta 13.5$)	57.5 ($\Delta 24.7$)	66.2 ($\Delta 16.7$)	44.7 ($\Delta 35.7$)	38.4 ($\Delta 49.7$)	44.4 ($\Delta 47.2$)	27.7 ($\Delta 57.3$)	29.2 ($\Delta 53.9$)	45.7 ($\Delta 44.3$)	29.3 ($\Delta 54.1$)	34.1 ($\Delta 53.1$)	47.7 ($\Delta 38.8$)	213.7 ($\Delta 49.7$)
D램	32.7 ($\Delta 7.0$)	27.9 ($\Delta 26.0$)	31.1 ($\Delta 17.6$)	20.7 ($\Delta 41.9$)	18.2 ($\Delta 51.0$)	24.5 ($\Delta 40.8$)	11.7 ($\Delta 63.6$)	12.6 ($\Delta 60.5$)	19.6 ($\Delta 49.5$)	14.7 ($\Delta 54.5$)	15.8 ($\Delta 57.4$)	19.0 ($\Delta 51.0$)	93.4 ($\Delta 55.7$)
낸드	7.4 (49.3)	6.2 (9.3)	6.7 (2.4)	5.7 ($\Delta 10.6$)	5.2 ($\Delta 16.8$)	3.5 ($\Delta 45.8$)	3.6 ($\Delta 30.3$)	4.9 ($\Delta 21.8$)	6.4 ($\Delta 14.6$)	3.5 ($\Delta 52.5$)	3.7 ($\Delta 53.9$)	4.7 ($\Delta 40.3$)	26.9 ($\Delta 36.5$)
메모리 MCP	18.3 ($\Delta 32.6$)	20.8 ($\Delta 26.5$)	24.7 ($\Delta 18.7$)	16.5 ($\Delta 30.0$)	13.5 ($\Delta 55.4$)	14.9 ($\Delta 52.6$)	11.1 ($\Delta 53.9$)	10.6 ($\Delta 49.6$)	16.2 ($\Delta 47.0$)	9.8 ($\Delta 50.3$)	12.7 ($\Delta 47.1$)	21.4 ($\Delta 14.5$)	81.9 ($\Delta 43.4$)
메모리 MCOs	3.2 ($\Delta 20.5$)	2.5 ($\Delta 46.6$)	3.6 ($\Delta 24.5$)	1.7 ($\Delta 56.3$)	1.5 ($\Delta 47.3$)	1.5 ($\Delta 70.1$)	1.2 ($\Delta 65.7$)	1.0 ($\Delta 75.9$)	3.4 ($\Delta 33.1$)	1.1 ($\Delta 73.9$)	1.7 ($\Delta 50.0$)	2.4 ($\Delta 59.6$)	10.8 ($\Delta 58.7$)
시스템 반도체	46.8 (40.4)	46.6 (31.0)	45.1 (20.2)	43.8 (17.6)	42.3 (8.3)	42.7 (9.9)	29.0 ($\Delta 25.0$)	26.9 ($\Delta 25.5$)	36.3 ($\Delta 18.4$)	31.2 ($\Delta 22.1$)	36.4 ($\Delta 4.9$)	37.8 ($\Delta 9.6$)	197.6 ($\Delta 17.5$)
개별 소자	1.3 ($\Delta 21.6$)	1.3 ($\Delta 12.8$)	1.4 ($\Delta 8.1$)	1.3 ($\Delta 11.2$)	1.3 ($\Delta 9.5$)	1.2 ($\Delta 17.6$)	1.2 ($\Delta 14.0$)	1.2 ($\Delta 8.9$)	1.5 ($\Delta 3.5$)	1.3 ($\Delta 10.0$)	1.3 ($\Delta 12.6$)	1.4 (2.9)	8.0 ($\Delta 7.7$)
광전 소자	2.3 ($\Delta 5.8$)	2.4 ($\Delta 7.9$)	2.5 (2.0)	2.7 (6.3)	2.9 (16.2)	3.0 (22.4)	2.2 ($\Delta 5.9$)	2.2 (9.2)	2.2 (11.1)	1.6 ($\Delta 19.3$)	1.6 ($\Delta 11.2$)	1.8 ($\Delta 13.1$)	11.7 ($\Delta 4.8$)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21.5	3.8	39.8	중국	31.7	-36.5	35.2	167.8	-39.8	38.2
2	홍콩	194.3	-26.9	14.8	홍콩	18.1	-14.0	20.1	69.5	-36.6	15.8
3	베트남	162.8	16.0	12.4	베트남	10.4	-19.6	11.5	58.5	-29.1	13.3
4	대만	124.0	15.9	9.5	대만	9.6	-17.0	10.7	40.6	-38.2	9.2
5	미국	95.5	0.3	7.3	미국	5.2	-50.5	5.7	22.6	-54.9	5.2
6	싱가포르	59.3	54.7	4.5	싱가포르	4.6	-15.2	5.1	20.5	-27.5	4.7
7	필리핀	37.4	-1.4	2.9	인도	1.8	22.9	1.9	8.9	-23.7	2.0
8	인도	22.7	79.8	1.7	말레이시아	1.6	-2.5	1.8	8.7	-4.1	2.0
9	말레이시아	19.2	16.2	1.5	일본	1.3	7.2	1.5	7.3	0.1	1.7
10	일본	13.5	-2.9	1.0	필리핀	1.1	-76.4	1.2	8.9	-58.8	2.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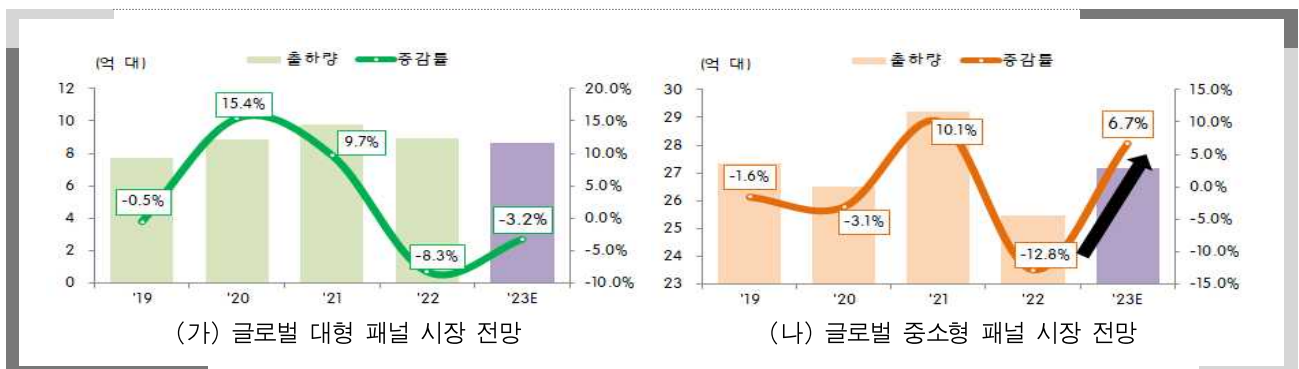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거시 경제 악화 속에서도 '23년 시장은 상저하고 양상을 보이며 회복세 진입 전망

- (시장 전망)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35억 8,254만 대, 4.1%↑)은 하반기 전방 수요 회복 등으로 반등할 전망(OMDIA, '23.6월)
 - (대형 패널) 지난해(8억 9,527만 대, △8.3%) 기저효과,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부진으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 전환
 - '23년(8억 6,629만 대, △3.2%)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내림세가 지속되겠으나 TV 교체 시기(6~7년 주기) 도래, 점진적인 소비 심리 회복, LCD 패널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조기 비축 행보 등으로 하반기 수요가 소폭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하락 폭은 축소될 전망
 - (중소형 패널) 전장용·XR기기용 등 신수요 증가와 더불어 하반기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패널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23년 중소형 시장(27억 1,626만 대, 6.7%↑)은 성장 전환할 전망
- (TV 시장) 올 하반기 반등 낙관론 속, 韓·中 간 프리미엄 vs 저가 경쟁 구도가 형성
 - 올해 TV 시장은 LCD 패널 가격 상승('22.10월 이후 지속), TV 교체 주기 도래 등으로 하반기(1억 1,671만 대, 5.5%↑) 수요가 개선되면서 회복이 기대(이데일리, 6.25일, 원소스 OMDIA)
 - (경쟁 동향) 중국 업체들은 618 쇼핑 축제, 높은 내수 판매 비중 등을 기반으로 저가형 LCD TV 판매를 앞세워 출하량을 늘리고 있으나 국내 업체는 경기 불황 등 불안정한 요인을 고려해 올해 출하량을 낮추며 보수적으로 대응할 방침. 다만 초대형, OLED TV 등 프리미엄에는 집중

그림 1-4 | 글로벌 대형 및 중소형 패널 시장 전망



자료 : OMDIA, 2023.6.

□ 국내 업체, OLED 아성을 지키기 위한 협업 강화 및 원천기술 보호 노력에 만전

-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동맹이 마침내 실현되면서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수혜가 기대
 - 7.5일 게재된 삼성전자 종합 카탈로그 '23.7~8월호에 기존 55·65·77인치 OLED TV 모델 외에 83인치 라인업(KQ83SC90AEXKR)이 추가 공개돼 주목.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의 협업설이 마침내 현실화 된 것으로 풀이
 - ※ 80인치 이상 OLED 패널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LG디스플레이 뿐인지라 삼성전자의 83인치 라인업 공개는 결국 양사가 협력을 택했다는 확실한 근거로 작용(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 가능한 최대 크기는 77인치)
 - 7.12일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첫 탑재한 '83인치 OLED 4K TV'를 미국에 출시하며 국내 업체 간 본격적인 협업 행보에 주목. 삼성전자는 4종으로 확대한 OLED TV 라인업을 기반으로 초대형 수요 충족은 물론 OLED TV 2위 업체인 소니 추격에 박차를 가할 예정
 - ※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상반기 실적 상쇄가 필요했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입장이 합치된 것으로 관측
 -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개선 및 대형 OLED 패널 주도권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 韓, 중소형 OLED 기술 보호 및 시장 선두 유지를 위한 中과의 특허 소송 공방이 확산
 - 美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이 '아이폰12' 패널 교체를 삼성디스플레이 정품과 중국산 가짜 제품을 교차 사용한 점이 발각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美 ITC에 중국산 가짜 패널 유통 금지를 요청
 - 이에 '23.5월 BOE는 무리한 맞소송²⁾을 제기하였고 6.26일 삼성디스플레이는 美 텍사스주 동부 지방 법원에 스마트폰용 OLED 특허 4종을 침해한 BOE를 처음으로 직접 특정하며 소송 제기
 - ※ 침해된 기술 중 하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BOE는 해당 기술들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학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자사의 기술이라 홍보
 -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또한 BOE를 자사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발표. BOE에서 공급받고 있는 TV용 LCD 패널 물량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체 물량은 LG디스플레이·샤프 등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관측
 - ※ 글로벌 TV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BOE와의 거래를 끊어도 타격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BOE는 전체 매출 중 삼성전자 비중이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피해가 예상(한국경제, 7.17일)
 - 게다가 삼성전자는 '24년 스마트폰 공급망에 BOE의 OLED 적용을 검토 중이었으나 BOE의 소송으로 양사 갈등이 첨예해지며 BOE로부터의 조달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관측, 업계 파장에 주목
 - 장기간 지속된 BOE의 특허 침해와 적반하장식의 소송 제기는 OLED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기위한 무리한 행보로도 해석되나, 국내 업체는 협력을 통해 중국의 무분별한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OLED 주도권을 강화할 방침

2) 삼성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자사의 OLED 패널 기술을 도용했으며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를 탑재해 스마트폰을 유통함으로써 BOE의 이익을 훼손했다 주장하며 충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



표 1-5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소송 일지

기간	소송 내용
'22.5월	• 삼성디스플레이 → BOE의 스마트폰용 OLED(아이폰12)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 송부
12월	• 삼성디스플레이 →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다이아몬드 픽셀' 등의 특허를 침해한 중국산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요청하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제소 ※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제소와 관련하여 자진 조사 신고를 제청
'23.5월	• BOE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중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맞소송 제기
6월	• 삼성디스플레이 → BOE에 스마트폰용 O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2) 수출 동향

□ '23.6월 패널 수출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15.9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역성장

- (품목별) 디스플레이 수출 부진 속에서도 LCD·부품 등 일부 품목의 낙폭 둔화로 '23.2월 이후 하락 곡선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추세
 - (LCD 패널 : 3.5억 달러, △19.5%) 국내 업체의 TV용 LCD 생산 중단, 전방 시장의 LCD→OLED로의 변화 등으로 역성장이 지속되나 하반기 IT기기 등 전방 수요 회복 기대 속 제조업체들의 재고 축적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
 - (OLED 패널 : 10.2억 달러, △6.7%) TV용 OLED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생산 지연 우려 등으로 6월 수출이 주춤, 다만 2개월 연속 10억 달러대를 유지
 - (부품 : 2.2억 달러, △16.2%) BLU(32.1%↑) 반동, 편광판(1.4억 달러, △23.2%) 등의 하락 둔화로 내림세가 크게 완화
- (지역별) 베트남·중국(홍콩 포함) 등은 하락하였으나 멕시코는 OLED 패널을 중심으로 반동
 - 베트남(8.8억 달러, △5.2%)은 LCD 패널(0.5억 달러, 18.5%↑) 수출이 13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OLED(8.1억 달러, △5.9%)의 반락, 부품(0.2억 달러, △18.2%) 부진 지속 등으로 하락 전환
 - 중국(홍콩 포함, 4.9억 달러, △30.3%)은 LCD(2.3억 달러, △26.0%)·OLED(1.1억 달러, △45.4%)·부품(1.5억 달러, △21.7%) 등의 역성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5억 달러대를 하회
 - 멕시코(0.9억 달러, 42.6%↑)는 LCD 패널(0.4억 달러, △21.9%), 부품(0.1억 달러, △7.1%)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OLED TV 신제품 출시 등으로 OLED 패널(0.4억 달러, 877.3%↑)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승 반전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상반기
패널	20.0 (△4.7)	20.9 (△5.3)	19.8 (△18.6)	20.3 (△9.6)	20.1 (△17.3)	16.0 (△35.2)	14.6 (△37.7)	13.0 (△42.2)	14.3 (△41.4)	14.2 (△30.5)	16.0 (△12.0)	15.9 (△11.1)	88.1 (△30.6)
LCD	4.8 (△8.7)	5.4 (12.5)	3.5 (△27.3)	3.6 (△30.4)	3.6 (△33.5)	3.4 (△39.6)	3.0 (△44.7)	3.0 (△43.1)	2.8 (△53.3)	2.9 (△43.9)	3.3 (△31.8)	3.5 (△19.5)	18.6 (△40.5)
OLED	12.5 (2.7)	12.6 (△10.0)	13.5 (△16.5)	14.3 (2.9)	14.1 (△7.6)	10.2 (△33.7)	9.6 (△31.3)	8.0 (△39.3)	9.1 (△35.9)	9.2 (△21.6)	10.6 (6.6)	10.2 (△6.7)	56.6 (△23.3)
부품품	2.7 (△24.1)	2.9 (△11.6)	2.8 (△16.2)	2.4 (△29.8)	2.3 (△34.2)	2.4 (△35.3)	2.1 (△50.1)	2.1 (△50.4)	2.4 (△42.6)	2.1 (△40.1)	2.1 (△37.8)	2.2 (△16.2)	13.0 (△41.2)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8.9	2.9	52.8	베트남	8.8	-5.2	55.7	50.7	-18.4	57.6
2	중국	89.6	-12.3	36.7	중국	4.7	-30.4	29.6	27.3	-47.0	30.9
3	멕시코	6.5	153.2	2.7	멕시코	0.9	42.6	5.4	2.8	-4.3	3.2
4	홍콩	4.0	-22.0	1.6	헝가리	0.4	272.2	2.2	0.6	-49.0	0.7
5	헝가리	2.9	239.5	1.2	인도	0.2	39.8	1.4	1.2	-14.0	1.4
6	인도	2.6	128.2	1.1	홍콩	0.2	-27.9	1.2	1.1	-60.6	1.2
7	미국	1.7	-23.5	0.7	미국	0.1	11.3	0.7	0.8	-17.0	0.9
8	일본	1.6	59.8	0.7	일본	0.1	-19.2	0.6	0.6	-32.2	0.6
9	슬로바키아	0.8	172.6	0.3	대만	0.1	2.0	0.3	0.3	-21.3	0.3
10	말레이시아	0.7	147.6	0.3	말레이시아	0.1	-5.8	0.3	0.3	-36.1	0.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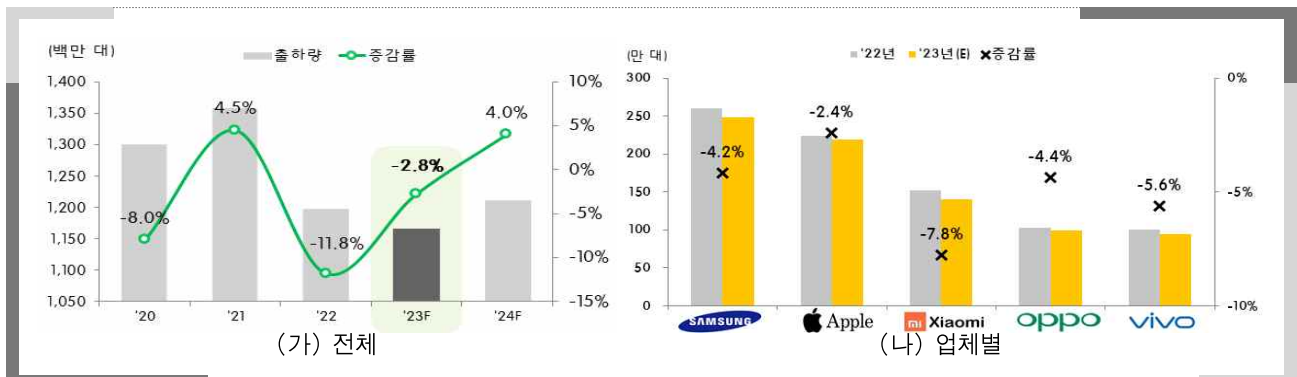


1) 수출 환경

□ '23년 스마트폰 시장, 주요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로 위축이 예상되나 내년 반등을 기대

- (전체) 소비 침체 요인 장기화 등에 따라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하락세(11억 6,480만 대, $\Delta 2.8\%$)가 지속되나 낙폭 축소 후 내년 상승 전환할 전망(SA, '23.6월)
 -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중국 소비 시장 회복 지연, 주요 업체들의 재고조정 등 업황 둔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년 연속 하락을 예상
 -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프리미엄 제품 선호 및 합리적 소비로 양극화되면서 발생한 제품 교체 주기 증가, 중고 제품 수요 확대 현상도 시장 위축을 야기
 - ※ '22년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역대 최대인 43개월로 추정되며, 올해도 40개월을 상회할 전망. 한편 '23년 중고폰 시장 규모는 3억 3,290만 대로 전년 대비 17.8% 확대를 예상(메리츠증권, '23.6월 / IDC, '23.5월)
 - 다만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의 프리미엄 제품 출시 등으로 하반기 회복세 진입이 예상되며 경기 회복 활성화, 올해 시장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4.0%↑) 반등을 기대
 - ※ 분기별 시장 성장률 전망치 : ('23.1Q) $\Delta 14.2\%$ → (2QF) $\Delta 7.7\%$ → (3QF) 0.0% → (4QF) 11.4%↑ → ('24.1QF) 4.3%↑ → (2QF) 5.3%↑ → (3QF) 3.8%↑ → (4QF) 2.9%↑
- (업체별)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의 출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SA, '23.6월)
 -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4,890만 대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면서 점유율도 소폭 하락('22년 21.7% → '23년F 21.4%)할 전망. 다만 시장 1위는 수성할 것으로 예상
 - ※ '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예상치 : (1위, 삼성전자) 21.4%, (2위, 애플) 18.8%, (3위, 샤오미) 12.1%, (4위, 오포) 8.5%, (5위, 비보) 8.1%
 - 애플도 전년 대비 2.4% 하락한 2억 1,870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나 상위 업체 중 유일하게 점유율 상승(0.1%p↑)을 기록함에 따라 18.8%를 차지하며 2위에 자리매김할 전망
 - ※ 종전 전망에서 주요 업체 중 삼성전자(1.5%↑)·애플(2.2%↑)은 출하량 확대를 기대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샤오미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1억 4,040만 대로 상위 업체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전망이며 오포($\Delta 4.4\%$)·비보($\Delta 5.6\%$) 등도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중국 업체들의 부진을 예상
 - ※ 프리미엄 제품 선호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저가 제품 위주의 판매 전략을 펼치는 샤오미·오포·비보 등 상위 중국 업체들의 합계 점유율은 ('22년) 29.7% → ('23년F) 28.7%로 하락할 전망

그림 1-6 | 전체 및 업체별 스마트폰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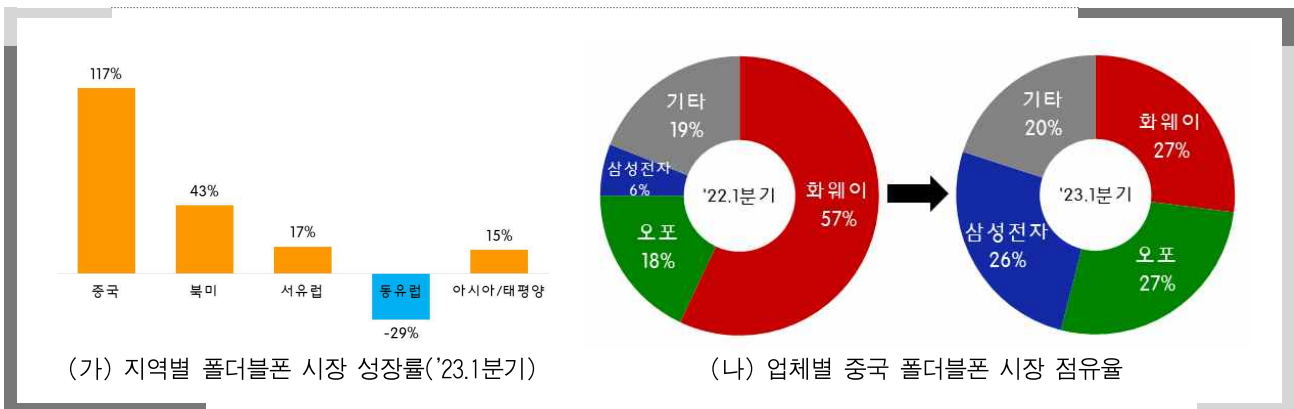


자료 : SA, 2023.6.

□ 삼성전자는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선두 유지를 위해 최대 시장인 중국을 겨냥

-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이 고성장을 달성하며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7월)
 -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증가, 가격 경쟁 확대 등으로 '23.1분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북미(43%↑)·서유럽(17%↑)·아시아/태평양(15%↑) 등 주요 지역에서 성장을 기록
 - ※ 다만 동유럽은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하며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감소를 기록
 - 이에 따라 '23.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2억 8,020만 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 출하량은 두 자릿수 성장(64%↑)한 250만 대를 달성
 - 특히 중국은 자국 업체들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 확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 폭 증가 등으로 출하량 108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117%↑)을 달성. 이에 따라 전 세계 판매량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유망 시장으로 부상
 - ※ 한편 '23.1분기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
- 삼성전자는 '23.1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두 자릿수로 확대하는 등 중국 업체를 위협하며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7월)
 - 삼성전자는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판매가 부진
 - ※ 신제품 출시 확대, 저렴한 가격 책정 등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화웨이·오포 등 중국 업체들의 '22.1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75%에 육박했으나, 삼성전자는 6%로 낮은 수준을 기록
 - 다만 갤럭시Z 시리즈를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게 변형한 제품을 별도로 출시하는 등 소비를 유도하며 시장을 적극 공략. 이에 따라 '23.1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20%p↑) 증가한 26%를 기록하는 등 자국 업체를 추격하며 존재감을 확대

- ※ 삼성전자는 '22.10월 갤럭시Z4 시리즈에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골드 색상 힌지 및 프레임을 적용한 갤럭시W23 시리즈를 출시
- 또한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지원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이어가며 중국 폴더블폰 시장 내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1위를 확고히 할 계획
- ※ 삼성전자는 '23.6월 갤럭시Z5 시리즈('23.7.26일 공개)의 변형 모델로 추정되는 제품 2종의 중국 CCC 인증(안전 인증 제도)을 통과했으며, '23.10월 중국 출시를 예상

그림 1-7 | 지역별 폴더블폰 시장 성장률 및 업체별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3.7.

□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유망한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경쟁이 격화

- 전 세계 최다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스마트폰 보급률, 경제 성장 등으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프리미엄 제품 수요도 증가를 기대
- 글로벌 인구 1위 국가로 부상한 인도는 '50년 16억을 초과하는 등 인구 확장세가 지속될 전망.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22년 기준)이 54%에 불과하여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UN, '23.4월 및 브릿지경제, '23.6월, 원소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 ※ UN에 따르면 '23년 인도 인구는 14억 2,860만 명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인구 추정치인 14억 2,570만 명을 초과해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에 오를 전망
- 이에 따라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22년 1억 5,200만대에서 '27년 2억 5,300만 대로 연평균(CAGR) 10.7%의 고성장 달성을 기대(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6월)
 - ※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이동,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의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 확대 등도 인도 스마트폰 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
- 한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저가형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 성장, 구매력을 갖춘 신중산층 확대, 5G 이동통신 상용화 등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
 - ※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2년) 3.4% → ('23년E) 2.8%에 그칠 전망이나, 인도는 ('22년) 6.8% → ('23년E) 5.9%로 선전을 기대(IMF, '23.4월)
- 이에 따라 '22년 인도 프리미엄(3만 루피 이상) 스마트폰 시장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11%,

시장 수익의 3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후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2월)

※ '22년 인도의 스마트폰 ASP(평균판매가격)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224달러를 기록했으며, '23.5월엔 253달러까지 성장하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지속 성장을 기대(IDC, '23.2월)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인도로 옮겨가면서 글로벌 업체들이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쟁이 과열

- 애플이 올해 인도 내 오프라인 매장을 신설하는 등 인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23.2분기 인도향 아이폰 판매량은 전체 아이폰 판매량의 약 4%를 차지. 이에 따라 역대 최초로 인도가 아이폰 판매량 5위에 오르는 등 호조를 기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3.7월)

※ '23.2분기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상위국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영국, (5위) 인도

- 삼성전자는 보급형 제품군 강화와 더불어 플래그십 제품 체험관을 확대하는 등 중저가 및 프리미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며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

※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갤럭시M 등 중저가 제품뿐만 아니라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 시리즈의 재고 부품으로 제작해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한 갤럭시S FE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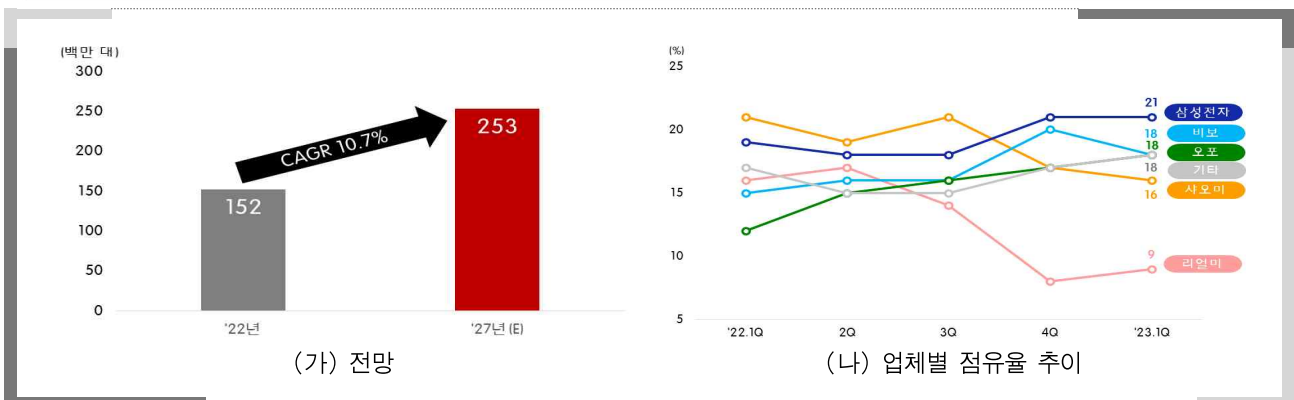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선두를 유지하던 중국 샤오미를 추월해 '22.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23.1분기에도 최다 출하량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강화

- 한편 저가폰 위주로 소비자를 공략하던 샤오미는 인도의 프리미엄폰 시장 확장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선두에서 밀려나는 등 부진을 기록

- 이에 따라 샤오미는 프리미엄폰 판매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험 제공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등 1위 탈환을 위해 노력

※ 인도 스마트폰 시장 내 오프라인 판매 비중은 약 56%로 이 중 삼성전자가 약 57%, 샤오미가 약 34%를 차지(ZDNet, '23.7월, 원소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그림 1-8 |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전망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3.6. / 카날리스, 2023.5.

2) 수출 동향

□ 부분품 상승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이 하락하면서 '23.6월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기록

- **(품목별)** 부분품이 4개월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낙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한 7.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내림세를 지속
 - (휴대폰 완제품 : 2.4억 달러, $\Delta 46.9\%$) 프리미엄폰 선호 증가 등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혁신 기술 부재에 따른 제품 교체 주기 장기화 등으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 (휴대폰 부분품 : 5.4억 달러, $7.0\% \uparrow$) 글로벌 업체들의 하반기 신제품 向 수요 증가,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상승 전환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3.2억 달러, $12.7\% \uparrow$), 베트남(1.2억 달러, $3.3\% \uparrow$), 인도(0.1억 달러, $\Delta 1.3\%$)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베트남·미국 등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EU 등은 하락
 - 중국(홍콩 포함, 3.3억 달러, $13.9\% \uparrow$)은 완제품($64.0\% \uparrow$) 성장세 확대와 더불어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12.7\% \uparrow$)이 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
 - 베트남(1.2억 달러, $3.2\% \uparrow$)은 완제품($\Delta 5.1\%$) 하락폭이 완화된 가운데 카메라 모듈·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부분품($3.3\% \uparrow$) 성장을 견인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 지속
 - 미국(1.0억 달러, $23.2\% \uparrow$)은 부분품($\Delta 25.6\%$) 내림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완제품($63.8\% \uparrow$)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
 - EU(1.3억 달러, $\Delta 58.9\%$)는 부분품($\Delta 9.0\%$) 하락과 더불어 완제품($\Delta 60.7\%$) 낙폭이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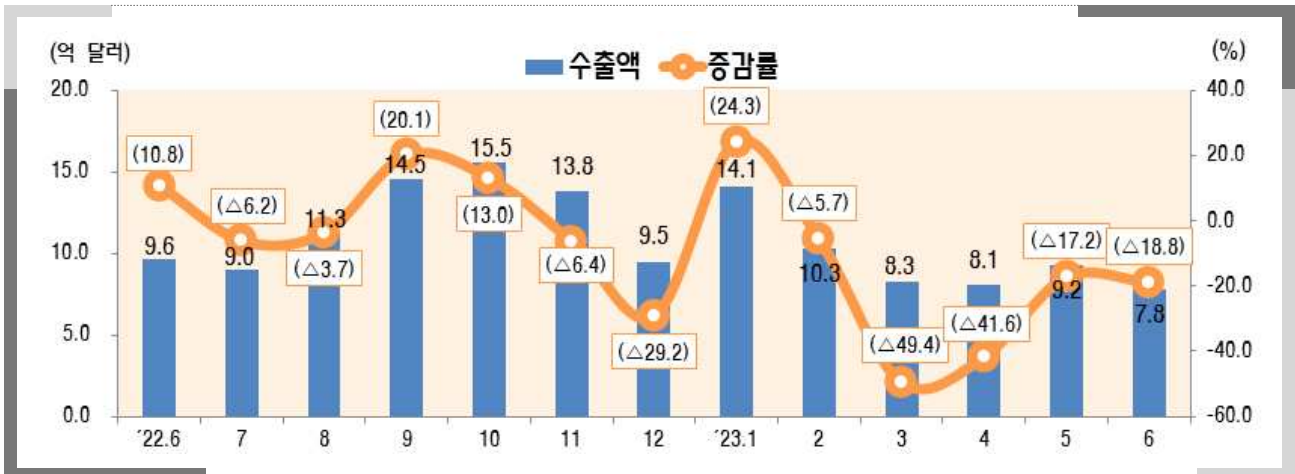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상반기
휴대 단말기	9.0 ($\Delta 6.2$)	11.3 ($\Delta 3.7$)	14.5 (20.1)	15.5 (13.0)	13.8 ($\Delta 6.4$)	9.5 ($\Delta 29.2$)	14.1 (24.3)	10.3 ($\Delta 5.7$)	8.3 ($\Delta 49.4$)	8.1 ($\Delta 41.6$)	9.2 ($\Delta 17.2$)	7.8 ($\Delta 18.8$)	57.7 ($\Delta 21.1$)
완제품	3.0 ($\Delta 22.2$)	2.5 ($\Delta 34.9$)	4.1 (23.5)	2.9 ($\Delta 28.8$)	2.8 ($\Delta 34.5$)	0.9 ($\Delta 76.6$)	3.4 (174.1)	1.7 ($\Delta 36.2$)	2.6 ($\Delta 66.4$)	3.3 ($\Delta 42.3$)	3.2 ($\Delta 24.2$)	2.4 ($\Delta 46.9$)	16.6 ($\Delta 36.3$)
부분품	6.0 (4.6)	8.8 (11.8)	10.4 (18.9)	12.7 (30.2)	11.0 (5.1)	8.6 ($\Delta 11.2$)	10.7 (5.7)	8.5 (4.5)	5.7 ($\Delta 34.4$)	4.8 ($\Delta 41.2$)	6.0 ($\Delta 12.9$)	5.4 (7.0)	41.1 ($\Delta 12.6$)

자료 : IITP, KTSPI

그림 1-9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73.2	47.9	49.9	중국	3.2	13.4	41.1	27.7	-11.4	48.0
2	베트남	18.8	-35.9	12.8	베트남	1.2	3.2	15.6	7.7	-22.2	13.4
3	미국	10.5	-57.1	7.2	미국	1.0	23.2	13.0	8.1	17.2	14.1
4	독일	5.8	21.2	3.9	독일	0.3	-63.8	4.4	2.5	-37.9	4.4
5	영국	5.3	1.0	3.6	영국	0.3	-52.8	3.7	2.0	-45.1	3.4
6	오스트리아	5.1	170.3	3.5	오스트리아	0.2	-75.3	2.6	1.1	-65.3	1.9
7	인도	3.8	13.2	2.6	스웨덴	0.2	29.8	2.6	0.7	-50.0	1.2
8	캐나다	2.8	77.7	1.9	네덜란드	0.2	-61.8	2.0	0.9	-48.7	1.6
9	네덜란드	2.8	108.8	1.9	프랑스	0.2	-32.8	1.9	0.7	-40.5	1.3
10	일본	2.3	2.9	1.6	필리핀	0.1	914.6	1.8	1.0	1233.7	1.7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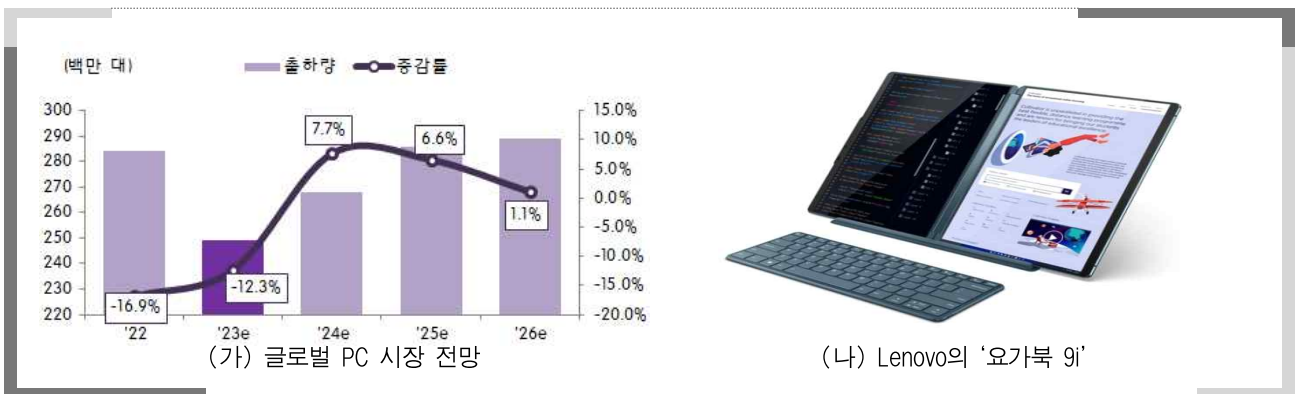
□ 올해 PC 시장은 경제적 불확실성·낮은 소비자 수요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전망

- (시장 전망) 글로벌 PC 출하량(2억 4,907만 대, $\Delta 12.3\%$)은 소비자 수요 둔화 등으로 높은 재고 수준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고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자·기업 PC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3년 글로벌 PC 시장은 2년 연속 역성장 전망
 - ※ 올해 데스크톱PC(7,608만 대, $\Delta 10.9\%$), 노트북(2억 798만 대, $\Delta 18.9\%$) 모두 두 자릿수 감소 예상
 - 다만 내년(2억 6,817만 대, $7.7\% \uparrow$)부터는 데스크톱(6,900만 대, $5.9\% \uparrow$)·노트북(1억 9,917만 대, $10.4\% \uparrow$) 등의 수요가 회복 반등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
- (업체 동향) 고사양·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출시와 더불어 혁신적인 제품도 선보여 눈길
 - (Lenovo) 세계 최초로 전면 OLED 듀얼 스크린을 탑재한 컨버터블 노트북 '요가북 9i'를 출시해 눈길(6.16일). 특히 컨버터블 폼팩터로 이루어져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멀티태스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이 장점
 - ※ 키보드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북 모드, 디스플레이 모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등으로 활용도가 다양
 - 또한 해당 신제품은 13.3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13세대 인텔의 i7 프로세서,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한 데 이어 인텔의 Evo 플랫폼 인증³⁾도 획득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인 '로크(LOQ)' 신제품 '16IRH8', '16APH8' 2종을 출시(6.22일). 프로세서는 각각 최대 13세대 인텔 i7-13700H CPU, AMD 라이젠7 7840HS CPU를 지원하며 그래픽은 공통으로 RTX 4060 GPU가 탑재돼 초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성능을 제공
 - ※ 또한 Lenovo의 게이밍 노트북 전용 'LA AI' 칩이 내장되어 있어 냉각팬, 성능 등의 지능적 조절이 가능하며 자사의 독보적 발열 관리 기술인 '리전 콜드프론트 5.0'과 히트파이프 설계로 보다 쾌적한 PC 환경을 제공
 - (Apple) 현재 동사의 올인원 컴퓨터인 '아이맥' 라인업 중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4인치(M1칩 탑재, '21.4월 출시)가 유일한 가운데, 최근 M1·M2 등 실리콘 칩을 탑재한 30인치 이상의 대형 아이맥(32인치로 추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
 - 특히 애플이 2년 넘게 신형 아이맥을 선보이지 않았던 만큼 기대감이 고조 해당 제품은 '24~'25년 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M3 칩을 탑재한 24인치 후속 모델도 '24년 초에 공개될 예정

3) '20.9월 인텔이 도입한 노트북 혁신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 검증하여 조건을 달성한 경우 Evo 플랫폼 인증을 부여

- (Acer)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트리톤X’와 ‘스위프트X 2세대’를 출시(6.30일). 프레데터 트리톤 X는 13세대 인텔 i9 프로세서와 현존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인 RTX 4090과 더불어 1TB PCIe SSD, 미니 LED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해 초고사양·초고성능 제품(250Hz 주사율 지원 등)으로 주목
- 2세대 스위프트X는 보급형 제품으로 AMD 바르셀로 CPU, RTX 3050Ti가 장착되었고 냉각 성능은 전작 대비 10% 향상된 반면 무게는 1.39kg로 가벼운 수치를 유지해 휴대성 등이 용이한 점이 특징. 동 시는 게이밍 제품을 앞세운 보급형·프리미엄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며 경쟁력 제고에 집중

그림 1-10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Lenovo의 신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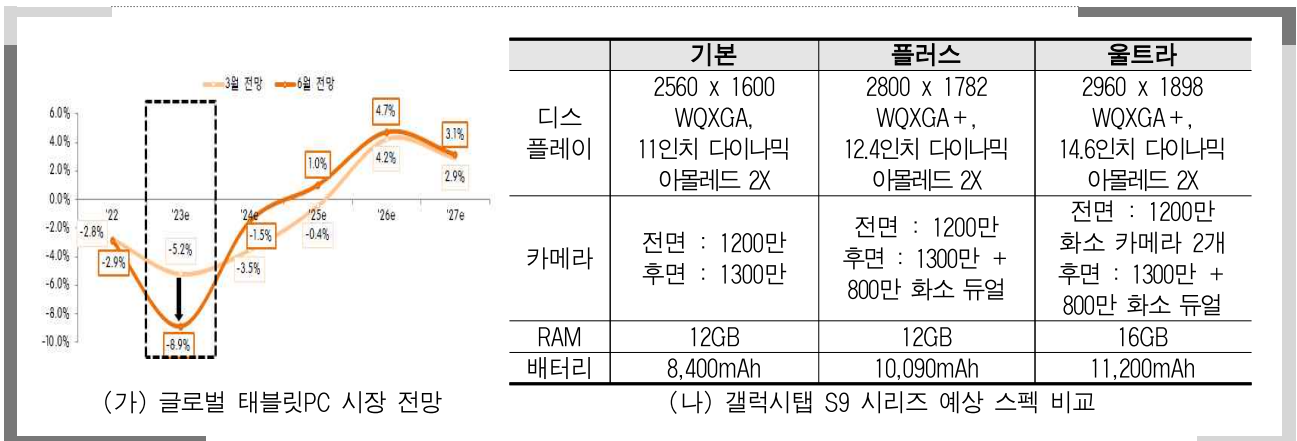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6. / 언론 자료 인용

□ (태블릿PC)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 올해 3년 연속 하락 곡선을 지속할 전망

- (시장 전망) '23년 태블릿PC 시장(1억 3,790만 대, △8.9%)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팬데믹 특수 소멸, 노트북·스마트폰 등으로의 수요 이전과 더불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종전 전망(△5.2%) 대비 하락 폭이 3.7%p 확대되며 '17년 이후 기준 최악의 수치를 보일 전망
- 태블릿PC 성능 개선을 위한 OLED 채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 라인업에 OLED를 채용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하반기 시장 경쟁력 강화에 만전
 - (삼성전자) '23.7.26일 '갤럭시 언팩'에서 신제품 '갤럭시탭 S9' 시리즈를 공개. '22.상반기 갤럭시탭 S8 출시 이후 1년 반 만에 선보이는 태블릿 신제품에 이목이 집중
 - 갤럭시탭 S9는 라인업(기본·플러스·울트라)과 외관상 측면에서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나, 전 라인업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스마트폰에 탑재)' 디스플레이 즉 OLED를 채용한 점, 후면 카메라 및 성능 등에서 차이가 존재
 - ※ 갤럭시탭 S8의 경우 플러스·울트라는 OLED 패널이 탑재되었으나 기본 모델은 LCD 패널을 채용
 - 한편 대체로 8월에 진행하던 언팩 행사를 2주가량 앞당겨 진행해, 일각에서는 애플과의 하반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으로 풀이. 태블릿PC 선두 업체인 애플 추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

- (Apple) 기존 미니LED·LCD를 채용해 왔던 동 사는 '24년부터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 태블릿PC 시장에서도 OLED 패널 채용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그림 1-11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갤럭시탭 S9 시리즈 예상 스펙 비교


자료 : Gartner, 2023.6. / 언론 자료 정리

□ (SSD) 올해 출하량은 수요 회복 등으로 반등 전망('22년 $\Delta 6.4\%$ → '23년E 1.6% ↑)

- (시장 전망) 소비자용 SSD 수요 개선으로 출하량이 소폭 개선되며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
 - 지난해 SSD 시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투자 위축, 전방 PC 시장의 불황 등으로 반락하였으나 올해(4.4억 대, 1.6% ↑)는 게이밍·자동차 등 소비자용 수요(3.5억 대, 3.5% ↑) 회복 등으로 성장 반열에 진입할 전망(Gartner, '23.5월)
-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 고용량 SSD에 주목
 - (SK하이닉스) 美에서 개최된 IT 전시회 'HPE 디스커버 2023(6.20~22일)'에 참가해 고성능 PCIe 5세대 기반의 기업용 SSD('PS1010 E3.S') 등을 공개. AI·머신러닝 보급이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고용량 SSD 수요에 대응할 방침
 - ※ 자회사인 솔리다임도 함께 참가해 PCIe 4세대 기반의 NVMe(비휘발성 기억장치 익스프레스) SSD를 공개
 - 또한 내년 초부터 회복이 기대되는 데이터센터·서버용 수요를 겨냥해 고용량(10TB 이상) 엔터프라이즈 SSD 라인업도 확대할 것이라 예고
 - ※ 6.22일 동 사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15·12TB급 SSD에 대한 전파 인증 적합성 평가 등록을 완료. 다만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최고 용량(30TB) 대비 상대적으로 용량이 낮아 경쟁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
 - (솔리다임) '23.5월 QLC(셀당 4비트) 기반 SSD 'D5-P5460'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집적도(높아질수록 저장용량이 증가)를 두 배 더 높인 고용량 SSD도 개발 중인 것으로 관측(7.3일)

2) 수출 동향

□ '23.6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48.7% 감소한 8.7억 달러 기록

- **(품목별)** SSD 가격 하락 여파로 주변기기 수출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 다만 모니터 등의 성장 행보에 전체 하락 폭은 소폭 개선되는 양상
 - (컴퓨터 : 0.8억 달러, $\Delta 9.9\%$) 중대형컴퓨터(0.2억 달러, $25.6\% \uparrow$)·노트북(0.1억 달러, $2.8\% \uparrow$)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0.4억 달러, $\Delta 25.0\%$) 하락으로 3개월 연속 감소
 - (주변기기 : 7.8억 달러, $\Delta 50.9\%$) 모니터(1.3억 달러, $23.2\% \uparrow$)는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SSD(5.3억 달러, $\Delta 60.4\%$) 등은 12개월 연속 하락하며 감소, 주변기기 수출 부진이 장기화
- **(지역별)**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역성장 지속, 다만 중국(홍콩 포함)은 감소세가 둔화
 - 중국(홍콩 포함, 2.7억 달러, $\Delta 25.2\%$)은 컴퓨터(0.2억 달러, $\Delta 51.0\%$) 등은 내림세이나 SSD(2.2억 달러, $\Delta 20.4\%$)의 감소 둔화 등으로 하락 폭이 전월 대비 $20.5\% \text{p}$ 완화
 - 미국(2.2억 달러, $\Delta 73.8\%$)은 컴퓨터(0.1억 달러, $70.2\% \uparrow$)·모니터(0.4억 달러, $24.0\% \uparrow$) 등은 반등한 반면 SSD(1.4억 달러, $\Delta 80.8\%$)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
 - 일본(0.6억 달러, $\Delta 41.5\%$)은 저장매체(0.4억 달러, $87.5\% \uparrow$) 호조에도 불구하고 SSD(0.1억 달러, $\Delta 85.6\%$) 등의 큰 폭 하락으로 5개월 연속 하락

표 1-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1 ($\Delta 21.9$)	12.6 ($\Delta 25.4$)	15.4 ($\Delta 20.2$)	10.3 ($\Delta 30.9$)	9.7 ($\Delta 45.2$)	11.7 ($\Delta 29.5$)	6.3 ($\Delta 58.7$)	6.6 ($\Delta 58.6$)	8.5 ($\Delta 52.5$)	5.9 ($\Delta 66.7$)	8.3 ($\Delta 53.1$)	8.7 ($\Delta 48.7$)	44.2 ($\Delta 56.3$)
컴퓨터	0.9 ($\Delta 58.0$)	0.7 ($\Delta 60.1$)	0.8 ($\Delta 60.1$)	0.7 ($\Delta 66.2$)	0.8 ($\Delta 63.0$)	1.1 ($\Delta 52.6$)	0.7 ($\Delta 24.3$)	0.8 (2.7)	0.9 (23.1)	0.7 ($\Delta 17.4$)	0.9 ($\Delta 6.0$)	0.8 ($\Delta 9.9$)	4.8 ($\Delta 6.9$)
부품	0.5 ($\Delta 71.2$)	0.4 ($\Delta 75.7$)	0.4 ($\Delta 76.8$)	0.4 ($\Delta 77.5$)	0.4 ($\Delta 77.2$)	0.6 ($\Delta 69.1$)	0.5 ($\Delta 15.6$)	0.4 (12.4)	0.5 (23.2)	0.4 ($\Delta 22.3$)	0.4 ($\Delta 15.7$)	0.4 ($\Delta 25.0$)	2.6 ($\Delta 9.5$)
주변기기	11.2 ($\Delta 16.3$)	11.9 ($\Delta 21.3$)	14.6 ($\Delta 15.6$)	9.6 ($\Delta 25.2$)	8.9 ($\Delta 42.7$)	10.5 ($\Delta 25.7$)	5.6 ($\Delta 61.1$)	5.8 ($\Delta 61.7$)	7.6 ($\Delta 55.6$)	5.1 ($\Delta 69.4$)	7.4 ($\Delta 55.6$)	7.8 ($\Delta 50.9$)	39.4 ($\Delta 59.0$)
보조기억 장치	8.7 ($\Delta 22.2$)	9.8 ($\Delta 28.0$)	12.3 ($\Delta 19.8$)	7.4 ($\Delta 31.5$)	6.8 ($\Delta 51.3$)	8.1 ($\Delta 34.3$)	3.2 ($\Delta 73.4$)	3.7 ($\Delta 72.0$)	5.4 ($\Delta 61.9$)	2.9 ($\Delta 79.8$)	5.3 ($\Delta 62.5$)	5.3 ($\Delta 60.4$)	25.9 ($\Delta 68.2$)
프린터	0.4 (16.0)	0.4 (62.7)	0.4 (19.1)	0.4 (35.3)	0.3 ($\Delta 4.4$)	0.4 ($\Delta 2.7$)	0.3 ($\Delta 30.2$)	0.3 (1.8)	0.3 ($\Delta 24.4$)	0.3 ($\Delta 22.2$)	0.3 ($\Delta 21.3$)	0.4 ($\Delta 4.1$)	1.9 ($\Delta 17.3$)
모니터	1.1 (51.7)	1.0 (64.3)	1.1 (55.9)	1.1 (56.1)	1.1 (41.7)	1.2 (35.8)	1.1 ($\Delta 15.8$)	1.2 (21.9)	1.3 (0.6)	1.2 (12.9)	1.2 (7.5)	1.3 (23.2)	7.2 (7.3)

자료 : IITP, KTSPI



그림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64.0	12.7	37.0	미국	2.2	-73.8	25.3	11.2	-68.8	25.4
2	중국	32.9	-26.5	19.0	중국	2.0	-15.4	23.1	9.9	-53.6	22.4
3	홍콩	18.5	-3.3	10.7	홍콩	0.7	-43.6	8.2	3.0	-69.2	6.7
4	네덜란드	7.2	52.2	4.2	일본	0.6	-41.5	6.4	2.6	-42.4	5.9
5	일본	6.8	22.8	4.0	베트남	0.5	45.8	5.2	2.8	31.5	6.3
6	대만	4.4	-10.6	2.5	대만	0.4	50.2	4.1	1.4	-48.4	3.2
7	베트남	4.3	194.9	2.5	폴란드	0.2	43.6	2.9	1.5	-12.4	3.4
8	싱가포르	4.2	-1.5	2.5	싱가포르	0.2	-47.6	2.5	1.2	-56.2	2.7
9	멕시코	4.0	-15.4	2.3	필리핀	0.2	272.8	2.5	0.9	162.5	2.1
10	폴란드	3.4	36.4	2.0	네덜란드	0.2	-73.7	2.4	1.2	-75.3	2.7

자료 : IITP, KTSPi

6 이차전지

1) 수출 환경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의 양호한 흐름 등으로 '23년 시장은 우상향 전망

- (시장 규모 및 전망) '23.5월 누적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한 237.6GWh로 가파른 성장 지속, '23년에도 뚜렷한 상승 곡선이 이어질 전망
 -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 출시, 주요국의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23.5월 누적 전기차 시장(BEV+PHEV, 상용차 포함, 484.6만 대, 43.0%↑)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또한 동반 상승
 - 게다가 '23.6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신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에 따라 중국 내 전기차 보급 속도에도 다시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올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우호적 환경 속 전년 대비 45% 성장한 749GWh 규모에 이를 전망
 - ※ (전기차) '23.6.21일 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⁴⁾을 '27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 발표. 단 '24~'25년(1단계)은 전액 감면이나 '26~'27년(2단계)은 50%만 지원하는 단계적 축소를 진행할 방침
 - ※ 한편 일각에서는 中 정부의 '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27년까지 신에너지차 취득세 지원 단계적 축소 등의 행보에 대해 경영난에 빠진 中 완성차 업체를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연명시키지 않고 경쟁력 있는 업체만 남을 수 있도록 시장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 제기
 - (경쟁 동향)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업체들의 파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ATL(59.6%↑)·BYD(107.8%↑) 등의 중국 업체 점유율은 늘어난 반면, LG에너지솔루션(56.0%↑)을 제외한 국내 업체 SK On(9.0%↑)·삼성SDI(28.8%↑)의 점유율은 감소. 다만 업체들의 실적 호조세는 지속

그림 1-13 |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2023.6.

4) '14.9월 도입된 중국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은 세 차례('17년, '20년, '22년) 연장 끝에 '23.12.31일 종료 예정이었음



□ 美 IRA 시행 여파로 경쟁 환경이 ‘유럽’에 초점, ESS 시장 內 한·중 간 전면전 예고

- **(유럽)** 독일 뮌헨에서 韓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유럽 2023(6.14~16일)’과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EES 유럽 2023’이 동시 개막, ESS 시장에서 한·중 업체의 격돌이 예상
 -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난을 겪었던 유럽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생 에너지 발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들은 유럽 가정용 ESS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잇따라 공개
 - ※ 슬라파워유럽에 따르면 유럽의 가정용 ESS 설치 대수는 '21년 65만 대 → '22년 100만 대로 급증(경향신문, 7.5일)
 - **(EVE에너지)** 최대 12,000회의 충전·방전이 가능한 LFP 기반의 ESS용 이차전지를 선보인 동 사는 '23.6월 美 ESS 제조사 포원과 10GWh의 공급 계약 체결에 이어 美 ABS(아메리칸 배터리 솔루션즈) 와도 13.4GWh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ESS용 시장에서 3위를 차지(KIPOST, 6.18일)
 - ※ '22년 ESS 시장 업체별 순위(서울경제, 5.30일 원소스 SNER) : (1위) CATL(43%), (2위) BYD(11.5%), (3위) EVE(7.8%)
 - **(LG에너지솔루션)** 가격경쟁력·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LFP 배터리 팩을 탑재한 주택용 ESS ‘엔블릭 E’를 최초 공개. 배터리 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최대 5개(15.5kWh)까지 확장 가능
 - ※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사용해 프리미엄 수요를 노린 주택용 ESS ‘엔블릭 S’도 동시 공개하였으며 해당 제품도 마찬가지로 최대 5개(17.7kWh)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
 - 엔블릭 E는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해 '23.하반기 유럽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동 사는 중국 업체가 장악해 온 LFP 배터리를 사용해 ESS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전략
 - ※ '20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의 ESS 시장 점유율은 55%에 달했으나 잇단 ESS 화재 사건으로 '22년 14.8% 까지 하락. 이 기회를 틈타 중국의 CATL, BYD, EVE에너지 등이 LFP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선두를 차지
 - **(삼성SDI)**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를 사용해 ESS 내부 배터리 셀·모듈 등을 하나의 박스 형태로 구현한 ‘삼성배터리박스(SBB)’를 처음으로 선보여 주목
 - 해당 제품은 양극재 특성상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이 향상되었으며 SBB의 전체 용량은 업계 최고 수준인 3.84MWh로 확인. 동 사는 ESS 시장에서 프리미엄 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
 - ※ 독일 가구의 1일 평균 전력 소비량이 10kWh인 점을 고려 시, 하루에 약 400가구의 전력 소비 충족 가능(전자신문, 6.14일)
 - 이외에도 기본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중 가격이 비싼 코발트를 제외한 NMX(코발트 프리) 이차전지, LFP 이차전지, 올해 시제품 제작 예정인 전고체 배터리('27년 상용화 목표)와 46파이 원통형 이차전지 시제품 등을 선보이며 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리더십 강화 의지를 피력
 - ※ 특히 46파이 이차전지 시제품은 '23.상반기에 구축했던 천안 사업장 파일럿 라인을 이용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할 예정
- 국내 업체들은 이미 유럽 지역에도 대다수의 생산 거점을 보유·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 또한 美 IRA를 피해 유럽 지역으로 눈을 돌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유럽 시장에서의 한·중 업체 간 각축전이 심화될 전망

표 1-12 유럽 내 주요 한·중 업체별 생산 공장

국가/업체명	한국			중국		
	LGES	SK On	삼성SDI	CATL		EVE
유럽 지역	폴란드	헝가리	헝가리	독일	헝가리	헝가리
세부 지역	브로츠와프	코마롬(1·2·3) 및 이반차	괴드(1·2)	에르푸르트	데브레첸	-
생산 규모	'25년까지 115GWh	'28년까지 77.3GWh이상	40GWh	'25년까지 100GWh	'25년까지 100GWh	-
비고	-	· '23.7월 중 이반차 1공장 파일럿 라인 가동 예정	· 괴드 3공장 건설 고려 중	· 유럽 제1공장	· 유럽 제2공장	· 구체적 계획은 미정이나 투자 예정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 시장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시작
 - 전고체 배터리는 구성 물질에 따라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로 구분되며 삼성SDI는 이중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상황
 - 특히 독자 설계한 ‘무음극 기술(Anode-less)’⁵⁾은 전고체 배터리의 안전성·수명 증가와 더불어 에너지 밀도 등도 높일 수 있는 점이 특징
 - ※ 무음극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음극층의 공간이 사라져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대비 크기를 절반 이상 축소 가능
 - '23.7월 경기도 수원시 연구소 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일명 ‘S라인’)을 가동하며 샘플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 동 사의 '27년 전고체 전지 양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이목 집중
 - ※ 다만 고체 전해질은 액체 대비 저항 값이 높아 이온 전도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리튬이온 대비 상당히 높은 제조원가 등도 과제로 산적

〈무음극 배터리 구조〉



자료 : 삼성SDI

5) 처음 셀을 만들 당시에는 음극이 없으나 충전 과정을 거치며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증착(deposition)이 이뤄지면서 음극층이 형성되는 기술, 삼성SDI는 나노 소재인 실버카본 층을 5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추가해 리튬이온의 안정적 이동이 가능하다 설명



2) 수출 동향

□ '23.6월 축전지 수출은 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하며 반등 기록

- **(품목별)**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른 ESS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용·부분품 등의 반등으로 6개월 만에 9억 달러대를 상회하며 상승 반전, 또한 역대 상반기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점도 주목

※ 역대 상반기 수출 추이(KTSPI, IITP, 억 달러) : (1위) '23.1H, 50.5, (2위) '22.1H, 47.5, (3위) '21.1H, 43.1

- (축전지 : 8.6억 달러, 17.6%↑) 전기차용(2.6억 달러, 41.4%↑) 수출 회복, 에너지저장장치용(2.6억 달러, 27.8%↑)의 두 자릿수 성장 등으로 3개월 만에 반등하며 8억 달러대 진입
- (부분품 : 0.6억 달러, 1.6%↑) 중국(홍콩 포함)·폴란드 등의 내림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호조세가 2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7개월 만에 성장 전환
- **(지역별)** 독일은 반락했으나 주요 교역국인 미국·중국·대만 등은 두 자릿수 성장 기록
 - 미국(4.9억 달러, 59.5%↑)은 정부 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지난달 일시적 부진을 딛고 축전지(4.7억 달러, 57.7%↑) 수요 회복과 부분품(0.2억 달러, 113.4%↑) 견조세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 폭을 기록하며 성장 반열에 재진입
 - 독일(0.7억 달러, △16.0%)은 축전지(0.7억 달러, △16.1%)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전환
 - 중국(홍콩 포함, 0.5억 달러, 3.5%↑)은 부분품(0.2억 달러, △43.7%) 부진에도 불구하고 축전지(0.3억 달러, 71.3%↑) 수출 견조 등으로 28개월 만에 반등
 - 대만(0.4억 달러, 85.7%↑)은 축전지(0.4억 달러, 85.9%↑) 수요 호조가 지속되면서 5개월 연속 고성장을 보이며 '23.6월 수출 상위국 5위권 내에 진입해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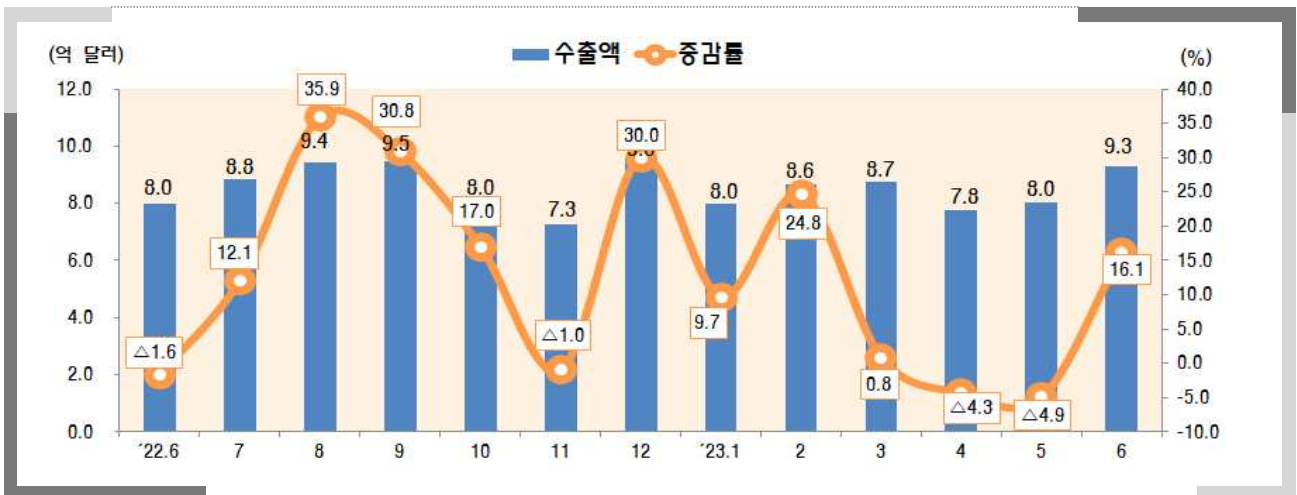
표 1-13 |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7	8	9	10	11	12	'23.1	2	3	4	5	6	상반기
축전지	8.8 (12.1)	9.4 (35.9)	9.5 (30.8)	8.0 (17.0)	7.3 (△1.0)	9.6 (30.0)	8.0 (9.7)	8.6 (24.8)	8.7 (0.8)	7.8 (△4.3)	8.0 (△4.9)	9.3 (16.1)	50.5 (6.4)
축전지	8.2 (15.0)	8.7 (41.3)	8.8 (34.2)	7.5 (19.1)	6.7 (△1.3)	8.9 (32.4)	7.5 (13.8)	8.1 (29.0)	8.1 (2.3)	7.2 (△3.1)	7.4 (△4.3)	8.6 (17.6)	47.0 (8.4)
부분품	0.7 (△15.2)	0.7 (△10.7)	0.6 (△7.3)	0.5 (△9.5)	0.6 (1.5)	0.6 (△0.2)	0.5 (△25.6)	0.5 (△20.2)	0.6 (△14.4)	0.5 (△18.3)	0.6 (△11.7)	0.6 (1.6)	3.4 (△15.1)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축전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4 축전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1.1	50.0	41.1	미국	4.9	59.5	52.6	24.3	36.6	48.2
2	독일	10.4	5.0	10.4	독일	0.7	-16.0	7.1	4.2	-17.2	8.3
3	중국	6.0	-28.8	6.0	중국	0.5	13.9	5.2	2.3	-30.4	4.5
4	일본	4.7	35.0	4.7	대만	0.4	85.7	4.7	1.5	120.2	3.0
5	베트남	4.6	17.9	4.6	일본	0.4	36.1	4.4	2.2	16.7	4.4
6	폴란드	3.2	-44.4	3.2	인도	0.3	120.2	3.5	1.9	163.9	3.8
7	헝가리	3.1	20.7	3.1	벨기에	0.3	350.2	2.8	1.5	485.7	3.0
8	인도	2.4	353.3	2.4	베트남	0.2	-69.5	2.4	1.5	-46.9	2.9
9	대만	2.2	190.9	2.2	폴란드	0.2	-29.8	2.0	1.0	-39.3	1.9
10	호주	1.9	-8.3	1.9	호주	0.2	2.8	1.9	0.8	-27.1	1.6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주요 산업의 AI 적용 확대 등으로 '23년 글로벌 및 국내 SW 시장은 성장 전망

- (시장 전망) '23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IT서비스와 패키지SW의 동반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조 3,326억 달러 달성을 기대(Gartner, '23.6월)
 -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등과 더불어 챗GPT 흥행에 따른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 등으로 문서작성, 고객관리 등 업무 수행에 AI 적용이 활성화되는 등 성장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SW 시장은 호황을 이어갈 전망
 - (IT서비스 : 1조 4,209억 달러, 8.8%↑) 원자재 가격 상승, 빅테크 업체의 데이터센터 증설 연기 등으로 하드웨어 지원(△2.0%) 분야는 소폭 감소를 예상. 다만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8.5%↑), 인프라 구현 및 관리(5.5%↑), 컨설팅(11.0%↑) 등 주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성장을 기대
 - (패키지SW : 9,117억 달러, 13.5%↑) 인프라SW(14.9%↑), 기업 애플리케이션SW(13.4%↑)·사용자 지향형SW(10.7%↑) 등 주요 패키지 수요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면서 확대를 예상
- (국내 시장) IT서비스 및 패키지SW 성장폭이 확대되면서 '23년 국내 SW 시장 규모도 상승 곡선을 그려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9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Gartner, '23.6월)
 - 다양한 산업 내 신기술 채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프로젝트의 AI·머신러닝 적용 범위 확장, 보안 위협 관리 필요성 확대, 데이터 처리 및 보호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 성장을 예상
 - (IT서비스 : 203억 달러, 8.9%↑) 하드웨어 지원(△3.2%) 분야를 제외한 인프라 구현 및 관리(6.3%↑), 비즈니스 프로세스(8.3%↑),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8.8%↑) 등 주요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역대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조를 기대
 - (패키지SW : 91억 달러, 13.7%↑) 인프라SW(15.1%↑), 기업 애플리케이션SW(12.2%↑), 사용자 지향형SW(12.2%↑) 등 주요 패키지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그림 1-15 전 세계 및 국내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3.6.

□ 국내 IT 서비스 업체, 물류·디지털 전환 솔루션 등 핵심 사업 역량을 증진

- 삼성SDS는 물류 사업 투자, LG CNS는 AI 기반의 코딩 시스템 구축, SK C&C는 안전 관리 및 중대 재해 예방 솔루션 개발 등 국내 IT 서비스 업체는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

표 1-15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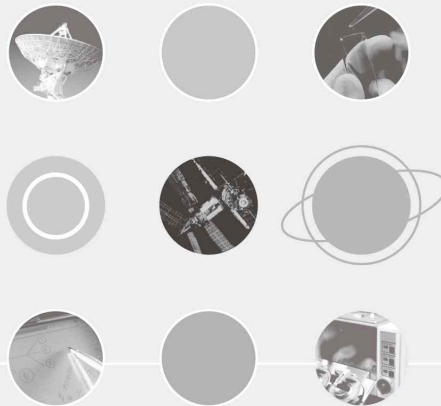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 운송 사업'의 운영사로 최종 선정 -'25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면적 2만 5,400㎡ 규모의 물류센터 완공 후 '26년부터 10년간 물류센터를 총괄 운영하며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예정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항공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소기업의 신속·정확한 항공 물류를 위해 자사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를 활용해 제품 보관 및 포장, 보안 검사, 통관 등 수출 물류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할 계획 ※첼로스퀘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입 시 견적부터 예약·운송·트래킹·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자동화·탄소 배출량 추적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 -또한 물류 진행 과정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비 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위한 맞춤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제공할 예정 -한편 동 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사, 물류 최적화, 판매 운영, 시장 확장 등 e-commerce 전반에 대한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자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구축할 때 코딩 업무를 지원하는 챗GPT 기반의 코드 생성형 AI 서비스 'AI 코딩'을 개발 -공개된 데이터만을 학습함에 따라 특정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알지 못하는 챗GP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 기술을 결합해 'AI 코딩'을 개발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는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특정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기술로 챗GPT의 최대 단점인 정보 유출 방지 기능도 포함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로부터 고객사가 SI/SM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코딩 표준, 시스템 개발 환경, 보안 수준, 성능 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챗GPT는 이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자동 코딩을 실시 ※일반적인 코딩 프로그램과 달리 SI/SM 프로젝트의 코딩 표준 및 개발 환경 특성을 반영한 코딩이 가능 -AI 코딩이 개발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드의 변환·생성·추천·품질검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 품질 향상, 기간 단축 등 개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전망 ※다만 AI가 생성하는 코드, 탐지한 오류 등에 대한 이해, 적합 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개발자에게 사용이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사업장 및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 -제조·유통·건설·통신 등 전국 단위 사업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한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국제 표준을 도입해 안전활동 이행 및 운영, 성과 평가, 개선 활동 등을 지원하며, 작업 현장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부적합 개선, 교육 등에 대한 이행 관리 체계도 제공. 또한 안전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추적·관리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해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안전 지표, 통계치 등 사업장 안전 현황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상황판을 제공하며, 안전점검 수행 이력 및 결과 등을 편리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지원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 -한편 동 사는 IoT 센서를 통해 작업자 위치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관제 기능, 이동형 CCTV 관제 기능, 스마트 드론 운영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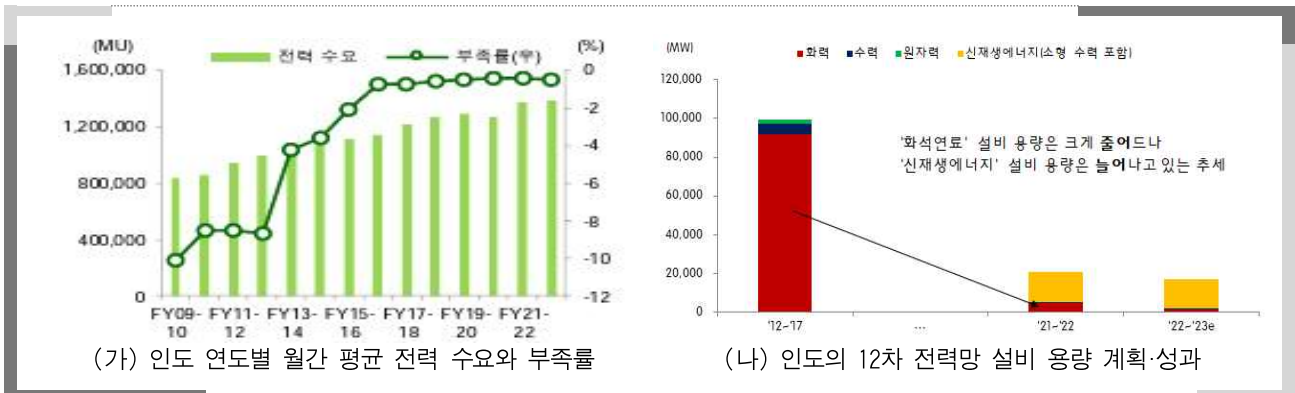
1 인도 - 전선 및 광케이블

□ 개발도상국 인도,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정책 및 5G 보급 상용화 등으로 여러 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전선 및 광케이블 시장도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

- 도시화를 증가, 제조업 발달 등에 따라 안정적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선 수요와 통신 고도화로 인한 광케이블 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인도의 전선 및 광케이블 시장에 눈길
- **(전력)** 평균 7.1%의 경제성장률⁷⁾로 고성장 중인 인도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중산층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21년 기준 중국·미국에 이어 전력 소비국 3위에 랭크. '23.1월 인도의 총 전력 소비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35억kWh를 기록(로이터, '23.3월)
 - ※ '21년 국가별 전력 소비량 순위(TWh, Enerdata, '22년) : (1위) 중국, 7,714, (2위) 미국, 3,869, (3위) 인도, 1,355
- 비록 '17년 이후부터 인도의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나 낙후된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석탄 발전 등으로 인도의 전력 공급 안정성은 여전히 불안하며 특히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 ※ '23.5.31일 기준 인도의 전체 발전 용량 417,668MW 중 석탄(205,235MW) 비중이 49.1%로 절반가량을 차지. 한편 비화석연료(179,322MW)도 43.0%로 비교적 파이가 커 눈길(인도 전력부, '23.6.12일)
- 이에 정부는 수요-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 생산량 확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 이로 인해 '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도의 케이블·전선 시장은 '18년(e) 8,724만 달러 → '23년(e) 1억 3,789만 달러(CAGR, 9.59%↑) 규모에 이를 전망(KOTRA, '22.1월)
- **(통신)** '22.10월 5G 통신 상용화를 시작으로 인도 전역에 5G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인도의 유선 광대역 시장은 '22년 5억 334만 달러에서 '28년까지 연평균 15.43%씩 고성장할 전망(TechSci Research, '23.2월)
- 더불어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2위 소비 시장으로서의 입지 확대와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 분야의 성장 등으로 고속 광대역의 안정적 보급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광케이블' 수요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
 - ※ 인도 정부는 '22.11월 말 기준 인도 전역에 약 21,000 대의 5G 기지국이 구축된 것으로 집계. 5G 상용화 이후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결과로 눈길(ZDNET Korea, '22.12월)

6)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7)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년을 제외한 '14~'22년까지의 인도 경제성장률 평균 기준(IMF)

**그림 2-1 인도 연도별 월간 평균 전력 수요와 부족률 및 12차 전력망 설비 용량 계획·성과**

자료 : 인도 전력부, 신영증권, 2023.4. 재인용 / 인도 전력부, 2023.6.

□ 인도 정부의 5G 상용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이 전선 및 광케이블 수요 자극

- (도시 개발) 인도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 및 디지털 전환 등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집중, 전력 및 광케이블 수요 확대 예상
 - '15.6월부터 시작된 '스마트시티 미션'은 100개의 도시를 우선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해 도시화율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다만 코로나 여파로 완료 목표 시점은 '23.6월 → '24.6월로 한차례 연기
 - ※ (스마트시티 미션 진행 상황) '23.3월 기준 총 7,742개의 프로젝트(220억 달러) 중 5,002개(67%)가 완성되었고 2,740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지역기반개발(재건축·재개발·녹지개발 등)'과 '범도시개발(스마트 솔루션 적용 등)'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인프라 마련을 위한 전력 및 광케이블 수요도 촉진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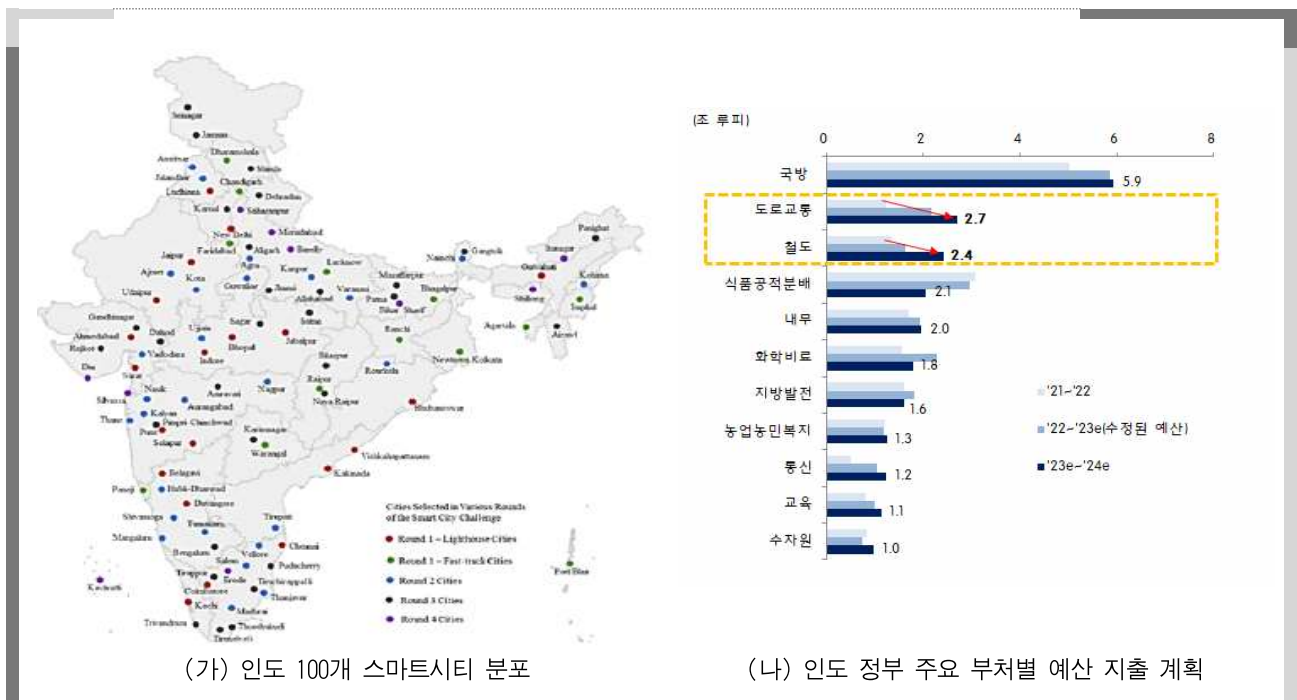
표 2-1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가이드라인

구분(자금 배정 비율)	주요 내용
지역기반개발 (Area-Based Development,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 재활용 및 빗물 재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급수 확실한 전력 공급(최소10% 태양광활용) 고형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위생 효율적인 도시 이동 및 대중교통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안정적인 IT접속과 디지털화
범도시개발 (Pan-City Development,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부(전자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지속 가능한 환경 시민 특히 여성과 노인의 안전 확보 건강과 교육 건물 80%가 에너지 효율 적용된 녹색 건물 건물의 15%가 저렴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 에너지 가격 책정 및 과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첨단 홈 자동화 서비스 고정식 카셰어링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통합 e-모빌리티 솔루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 환경 및 인프라 센싱 고화질 리모트 비디오 키오스크를 통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시민 서비스 솔루션

자료 : KOTRA, 2023.4.

-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제조업 발달로 물류·교통 인프라 개선 요구가 늘어나면서 도로·철도 등 개발 투자·예산을 확대, 이에 전력 소비량도 증가하며 전선 수요를 자극
 - 'Make In India'에 따른 자국 제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 정부는 '08~'19년까지 전력·도로·교량 부문에 60% 이상의 인프라 투자금을 제공하며 적극 투자
 - '19년 '인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를 발표한 데 이어, '21년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부양 등을 위한 '물류 인프라 부흥계획(Gati Shakti)'을 발표하며 도로·철도·항만 등 물류·운송 인프라 확충에 한층 더 집중
 - ※ NIP는 규모가 10억 루피 이상인 인프라 프로젝트 중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20~'25년까지 총 111조 루피를 투입 예정
 - 특히 '23~'24년 인도 정부의 예산 지출 계획 중 도로교통부와 철도청 예산이 2~3번째로 높은 순위에 할당되는 등 물류·교통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
 - ※ 도로교통부 예산은 2.7조 루피(약 47조 원, 24.6%↑), 철도청은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 루피(약 36조 원, 48.6%↑)가 할당돼 주목(PRS Legislative Research, '23.3월)
 - 이에 따라 인도 전역을 철도 인프라로 잇는 화물전용 회랑 프로젝트(Freight Corridors), 83,677km 길이의 고속도로로 인도의 각 550개의 주를 연결하여 운송 효율성을 개선하는 바랏말라(Bharat Mala) 건설 프로젝트 등이 시행되면서 전선 소비도 크게 증가할 전망(KIEP)

그림 2-2 인도 100개의 스마트시티 분포 및 인도 정부의 주요 부처별 예산 지출 계획



자료 : KOTRA, 2023.4. / PRS Legislative Research, 2023.3.







- **(통신) 5G 상용화와 함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의 산업 성장 속, 광케이블 시장도 동반 호황을 누릴 전망**
 - (5G) 인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20년 말부터 5G 도입 로드맵('5G INDIA FORUM')을 본격 추진하며 '22.7.26일 수차례 연기됐던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
 - ※ 5G INDIA FORUM에 따르면 (1단계) '20년 말부터 초광대역 서비스(eMBB) 실시, (2단계) '21년 다연결 서비스(mMTC) 실시, (3단계) '22년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서비스(uRLLC) 실시할 것이란 로드맵을 구성
 - (주파수 경매) 총 72,098GHz 대역 중 71%인 51,236GHz가 인도 통신 업체에 할당되었으며 총 낙찰가는 1.5조 루피(약 24.9조 원)로 집계. 특히 인도의 주요 통신 업체인 릴라이언스 지오가 가장 높은 금액(8,810억 루피, 약 15.6조 원)을 투입해 눈길
 - ※ 이어 2위 통신사인 바르티 에어텔은 4,310억 루피, 보타폰 아이디어는 1,878억 루피를 투입하여 경매에 참가
 - 이후 '22.10월 5G 통신 상용화에 본격 합류, 두 달 뒤인 '22.11월 말 기준 인도 전역에 21,000대의 기지국이 배치되었으며 5G 확산에 속도가 붙는 양상(RCR와이어리스)
 - ※ 릴라이언스 지오는 총 17,687대의 기지국(4개의 대도시)을, 경쟁사인 바르티 에어텔은 3,293대의 기지국(8개의 대도시)을 설치하였으며 각 사는 5G 전국망(5,000개 도시) 구축 시점도 '23년 말, '24.3월을 목표로 제시
 - 5G 서비스 확대로 5G 기능을 활용하는 IoT기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5G 인프라 구축에 필수인 광케이블 활용 또한 증가할 전망
 - ※ 일각에서는 인도의 5G 보급 영향으로 '35년까지 4,5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 제기
- **(신재생에너지⁸⁾)** 인도는 탈탄소 정책과 더불어 지역별 전력 배분 효율화, 24시간 지속적인 전력 제공 등을 위해 송전 인프라 강화 및 안정화에 노력
 - (정책) 인도 모디 총리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발전 용량 500GW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송전시스템 계획도 수립
 - ※ '22년 기준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66.4GW 수준으로 '14년 대비 114% 증가한 수준
 - '2030년 500GW 재생에너지 통합 송전시스템'은 인도 서부에서 발전된 재생에너지를 동부로 송전하는 등 인도 전역으로의 전력 배분 확대를 목표로 약 2조 4,400억 루피를 투입할 예정(한국에너지공단)
 - ※ '22.1월 인도 국가송전위원회는 인도 서부의 라다크에서 발전된 재생에너지를 북동부의 하리아나 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전선을 확대하는 사업 제안서를 승인한 바가 존재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용 송전시스템 건설·개조를 통해 인도 지역 간 교류되는 송전 용량은 '22년 약 112GW 수준에서 '30년 150GW로 늘어날 예정이며 전선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 송전시스템 건설 계획에 따르면 고압직류송전선로(800kV와 350kV) 8,120km, 765kV 선로 25,960km, 400kV 선로 15,758km, 220kV 선로 1,052km 등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

8) 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시 소모되는 케이블 양은 일반 화력발전소 대비 3~4배이며,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력 송배전을 위한 전선 등 추가적인 케이블 수요가 발생. 또한 '21.9월 기준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세계 4위 수준(KOTRA, '22.1월)

□ 인도 정부의 통신·전력 인프라 투자 확장 등으로 업체들은 생산 역량을 강화

- 글로벌 업체들은 광활한 인도 대륙의 폭발적인 전선 및 광케이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수주 확보에 집중

표 2-2 | 글로벌 전선 및 케이블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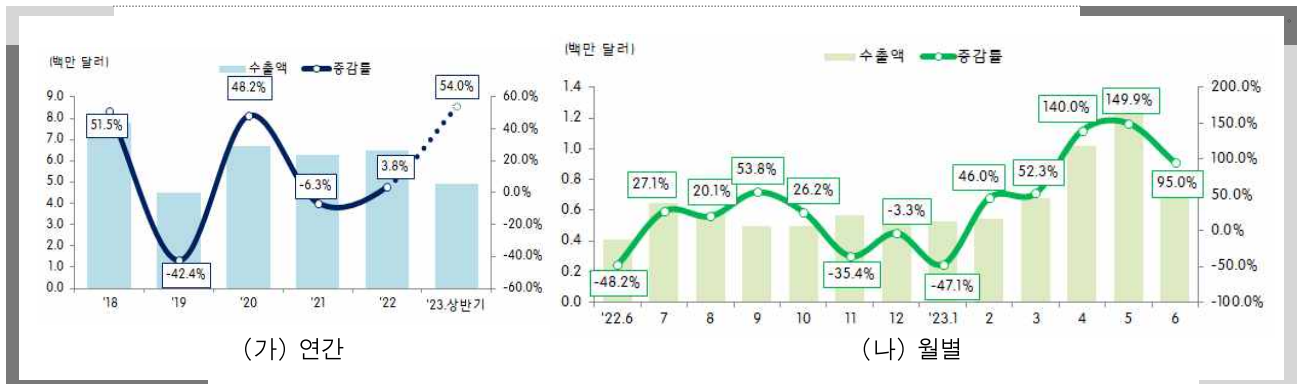
업체	주요 내용
 POLYCAB Connection. Zindagi. Ka.	• 인도의 가장 큰 전선 및 케이블 업체인 동 사는 '23.5월 70억 루피를 투자하여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할룰에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26년부터 양산 예정)을 건설할 것이라 발표
 KEI Wires & Cables	• 인도의 콘칸 철도 업체와 동 사가 협력하여 인도 서남부의 마하라슈트라주~남서부 카르나타카주 사이의 741km에 전기철도용 전선 설치를 완료('22.4월)
 Finolex gets people together	• '23.4월 푸네에 있는 Urse 공장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자 20억 루피를 투자할 것이라 발표. 인도의 전선 및 광케이블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모양새
 LS 전선	• 아시아 최고 부호인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이끄는 아다니 그룹의 산하 전력 회사('AEMIL')가 주도 하는 약 1조 원 규모(1,000MW급)의 송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320kV급 고압 직류송전(HDVC) 지하케이블 공급 업체로 채택('22.7월) ※인도 아어리(Aarey)와 쿠두스(Kudus) 간 80km 거리를 잇는 지하케이블을 공급 ※지난 '18년 인도 전력청으로부터 44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 수주에 성공하며 인도 시장에 본격 진입했던 동 사는 폭발적 전력 사용량 증가 등으로 전선 및 광케이블 수요 성장성이 큰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

□ 對인도 전선 및 광케이블 수출은 신재생에너지, 5G 등의 신수요가 확대되며 호조 기록

- (연간)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상반기 실적 기준 8년 만에 400만 달러를 상회
 - '19년에 큰 폭 하락한 데 이어 '21년 광섬유케이블의 반락(157만 달러, △38.0%) 등으로 주춤 하였으나 인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시행 및 5G 상용화 등으로 '22년은 반등 기록
 - '23년(상반기 누적, 489만 달러, 54.0%↑)은 동축케이블 및 기타 동축도체(259만 달러, 27.0%↑), 광섬유케이블(211만 달러, 100.5%↑)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기준 '16년 이후 처음으로 400만 달러대를 기록, 이에 따라 올해 對인도 전선 및 광케이블 수출의 상승 가도가 기대
- (월별) 도시개발·5G·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등으로 인도의 전선 및 광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면서 '23.6월 수출은 5개월 연속 고성장
 - '23.1월 수출은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2월 회복세에 진입한 데 이어 두 자릿 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 곡선을 유지
 - '23.5월(133만 달러, 149.9%↑)은 광섬유케이블(90만 달러, 727.0%↑)의 월등한 성장세가 지속 되면서 '15.11월 이후 최대 수출액을 달성
 - 6월 수출(80만 달러, 95.0%↑)도 동축 케이블과 기타 동축도체(44만 달러, 86.7%↑), 광섬유케이블(32만 달러, 129.6%↑) 등의 호조로 뚜렷한 우상향 기조가 지속



그림 2-3 |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3 | 반도체 전선 및 광케이블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6	7	8	9	10	11	12	'23.1	2	3	4	5	6
전선 및 광케이블	0.4 (△48.2)	0.6 (27.1)	0.6 (20.1)	0.5 (53.8)	0.5 (26.2)	0.6 (△35.4)	0.5 (△3.3)	0.5 (△47.1)	0.5 (46.0)	0.7 (52.3)	1.0 (140.0)	1.3 (149.9)	0.8 (95.0)
동축 케이블과 기타 동축도체	0.2 (△52.0)	0.5 (14.3)	0.6 (139.0)	0.4 (36.6)	0.5 (121.1)	0.4 (△10.2)	0.4 (35.5)	0.4 (24.3)	0.4 (52.9)	0.5 (31.2)	0.4 (△1.7)	0.4 (3.1)	0.4 (86.7)
광섬유 케이블	0.1 (△47.5)	0.1 (1,019.2)	0.0 (△97.2)	0.0 (△43.5)	0.0 (△98.3)	0.0 (△73.6)	0.1 (△66.7)	0.1 (△86.1)	0.0 (△54.8)	0.2 (165.7)	0.6 (3,725.0)	0.9 (727.0)	0.3 (1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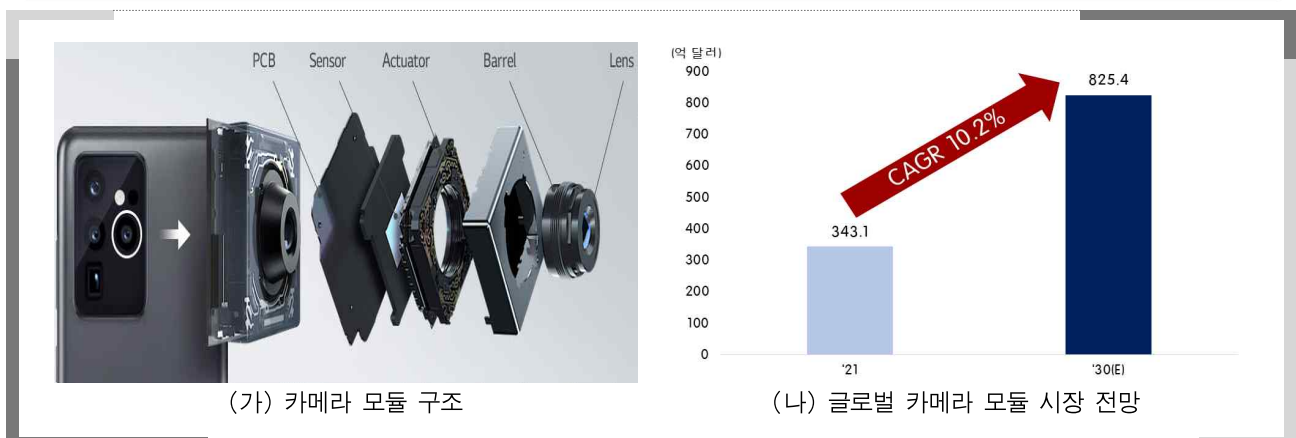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2 카메라 모듈

□ 카메라 모듈 시장은 스마트폰·자율주행차·XR기기 등 수요 다각화로 성장 전망

-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은 성숙기인 스마트폰 산업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율주행차, XR기기 등 전방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오름세를 기대
 -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제품 선호 기조 등에 따른 스마트폰 카메라 고성능화, 탑재 수 증가 등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스마트폰向 카메라 모듈 수요도 확대를 기대
 - ※ 전체 대비 프리미엄(500달러 이상) 스마트폰 비중은 ('19년) 22% → ('20년) 22% → ('21년) 25% → ('22년) 27% → ('23.1분기) 31%로 오름세를 지속(카날리스, '23.5월)
 -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달 및 실증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각 국 정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도입 확대 등으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가 강세를 보일 전망
 - 또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 이에 따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 등 XR(확장현실)이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XR기기向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를 예상
 - 특히 자율주행차 및 XR기기는 정밀성이 중요하게 작용해 스마트폰 대비 많은 카메라가 탑재됨에 따라 카메라 모듈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 자율주행차는 약 12개 이상의 카메라가 요구되며,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의 XR 헤드셋 '비전 프로'에는 약 13개 카메라 탑재가 예상되는 등 스마트폰(약 3~4개) 대비 많은 카메라가 필요
 - 이에 따라 '21년 343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글로벌 카메라 모듈 시장은 '30년 825억 4,000만 달러가 예상되는 등 연평균(CAGR) 10.2%의 고성장 달성을 기대(Polaris Market Research, '22.6월)

그림 2-4 | 카메라 모듈 구조 및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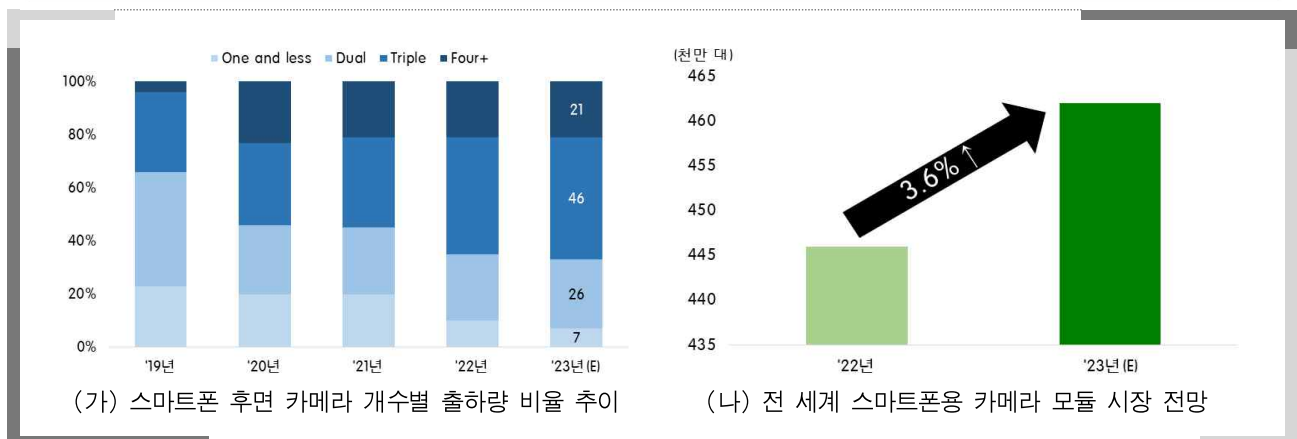


자료 : 전자신문, 2022.8. 원소스 LG이노텍 / Polaris Market Research, 2022.6.

□ 카메라 성능이 스마트폰의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카메라 모듈 시장 확대를 견인

-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판매 확대를 위한 카메라 차별화 전략,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 회복 기대 등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생산량은 확대를 예상
 -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카메라 성능을 중요시하는 소비 형태가 전개됨에 따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고집적·고성능화되며 기술이 발달
 - 또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도 증가,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시 카메라 성능 강조에 따른 경쟁 과열, 특수 촬영 기능 탑재 등이 동영상 화질 개선, 흔들림 보정 성능 향상, AI 활용 등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고사양화를 가속화
 - ※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제조업체들은 혁신 제품 출시에 난항. 이에 따라 판매 확대를 위해 향상된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
 - 최근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저해상도 카메라 2개, 고해상도 카메라 1개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 또는 최상위 모델의 경우 ‘쿼드 카메라’ 채택을 확대하면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증가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수요도 확대
 - ※ '23년 후면 카메라 개수별 스마트폰 출하량 비율 전망(TrendForce, '23.3월) : (0개 또는 1개) 7%, (2개) 26%, (3개) 46%, (4개 이상) 21%
 - 한편 '23.하반기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 기조에 들어선 후 내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SA, '23.6월) : ('23.1Q) △14.2% → (2QF) △7.7% → (3QF) 0.0% → (4QF) 11.4% ↑ → ('24.1QF) 4.3% ↑ → (2QF) 5.3% ↑ → (3QF) 3.8% ↑ → (4QF) 2.9% ↑
 - 이에 따라 '23년 전 세계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생산량은 전년(44억 6,000만 대) 대비 3.6% 증가한 46억 2,000만 대를 기록할 전망(TrendForce, '23.3월)

그림 2-5 |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개수별 출하량 비율 및 카메라 모듈 시장 전망



자료 : TrendForce, 2023.3.

□ 자율주행 및 XR 등 기술 고도화가 카메라 모듈 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

- 반자율주행 도입 본격화 및 완전 자율주행 연구 활성화 등으로 외부 상황 정보를 처리하고 프로세서로 보내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가 확대
 -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 환경 파악에 카메라,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가 복합적으로 활용되나 영상만으로 충분한 주행 정보 수집, 레이더·라이다 대비 저렴한 가격 등으로 최근 자율주행차 업계는 카메라 위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대두
 - 또한 질감, 색상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센서로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주변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수량의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자율주행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카메라 모듈 수요도 확대
 - ※ 자율주행차 평균 카메라 모듈 탑재 수(조선비즈, '23.6월, 원소스 올디벨롭먼트) : ('20년) 2~3개, ('21년) 7~8개, ('22년) 12개
 - 한편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집중되고 있으나, 주차를 보조하는 서라운드뷰모니터(SVM),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로 차의 후면을 실시간 촬영하는 ‘버추얼미러’, 줄임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자 시선을 파악하는 내부 카메라 등 사용처가 확대
 - ※ 차량용 카메라는 크게 360도 촬영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뷰잉 카메라, 차량 간 충돌 예방 및 브레이크와 차선 유지 등을 지원하는 센싱 카메라로 구분되며,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의 피로도나 운전 패턴 등을 감지하는 인캐빈(in-cabin) 카메라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 또한 단순히 주변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뷰잉 카메라에서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등을 지원하는 센싱 카메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고화소화, 광각화 등 카메라의 고성능화도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장용 카메라 출하량은 '23년 2억 2,100만 개를 달성하며 최초로 2억 개를 넘어선 뒤 '30년 5억 600만 개로 연평균(CAGR) 12.6%의 성장을 기대(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2.8월)

표 2-4 자율주행의 자동화 단계별 소요 카메라 수

레벨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無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자동화 항목	-	조향 또는 속도	조향 및 속도			
자동화 구간	-	특정 구간				전 구간
운전 주시	항시 필수			시스템 요청 시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전 구간 불필요
예시	사각지대 경고	조향 또는 감가속	조향 및 감가속 동시 작동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지역(Local) 무인 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여부	완료	완료	완료	진행 중	진행 전	진행 전
카메라 수	1개	2개	7~8개	12개	12~15개	15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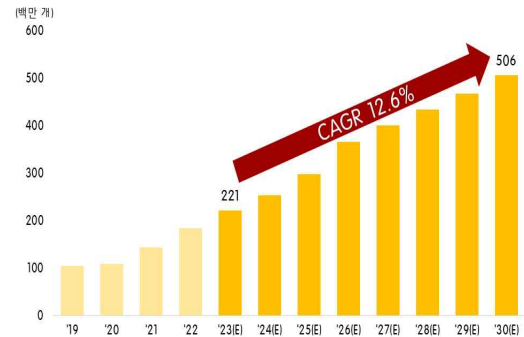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및 언론 자료 정리



표 2-5 자율주행 센서 특징 및 전장용 카메라 출하량 추이

구분	내용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 • (특징) 사람의 눈과 유사하게 질감·색상·대비 등의 파악이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하나, 날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거리 측정에 취약
레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 전파로 거리 및 속도를 측정 • (특징)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으며 사물을 투과해 측정이 가능하나, 표지판 인식이 불가능하고 직선거리 측정만 가능한 등 정밀성이 부족
라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 빛을 통해 원근감, 형태, 거리, 속도를 인식 • (특징) 센서 중 가장 높은 해상도·정확도 표현이 가능하나, 날씨에 민감하며 비싼 가격이 단점

(가) 자율주행 센서 특징



(나) 글로벌 전장용 카메라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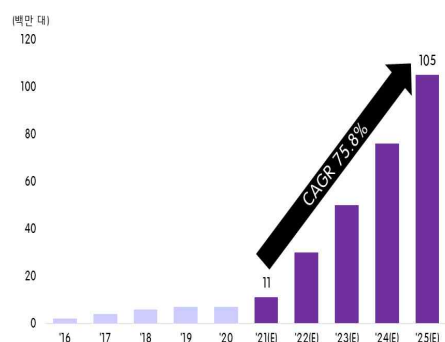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동향, 2022.7.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2.8.

- 메타버스 산업 확대에 따른 XR기기 시장 성장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도 낙수 효과를 기대
 - 5G 이동통신 도입 본격화로 VR·AR·MR 등 XR 구현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환경 수요가 확대되면서 메타버스가 유망시장으로 급부상
 - ※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1년 516억 9,000만 달러에서 '30년 1조 3,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CAGR) 43.1% 성장 달성을 예상(Precedence Research, '23.3월)
 - 또한 글로벌 빅테크 업체 메타가 XR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애플·삼성전자 등의 진입이 예고되는 등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 XR기기 출하량은 '21년 1,100만 대에서 '25년 1억 500만 대로 연평균(CAGR) 75.8%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21.12월)
 - ※ 메타의 '22.4분기 글로벌 XR 기기 시장 점유율은 81%로 분석(ZDNet, '23.6월, 원소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 한편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가상현실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최소화인 만큼 고해상도 XR 화면 구현, 미세한 움직임 포착 등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를 예상

표 2-6 XR 종류 및 XR기기 출하량 추이

구분	XR(extended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MR (Mixed Reality)	VR (Virtual Reality)
개념	기기를 통해 현실 환경 위로 그래픽을 띄우는 기술	카메라를 활용해 현실 환경 포착 후 화면에 투사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환경을 체험
구현 방식	현실정보 위에 가상정보 구현	현실정보 기반 가상정보 융합	현실세계 차단, 디지털 환경 구현
예시	내비게이션	의사의 수술 훈련	역사 건축물 재현
환경	현실 환경	←-----→	가상 환경
몰입감	약	←-----→	강

(가) XR 종류



(나) 글로벌 XR기기 출하량 추이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1.12.

표 2-7 XR기기 시장 성장 단계

단 계	내 용
기술 개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VR HMD 제조업체 오쿨러스가 출범 후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해 VR PC 게이밍 기기 '오쿨러스 리프트' 개발자 버전을 공개했으며, 구글이 AR기기 '구글 글래스'를 출시하면서 AR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대두
투자 활성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페이스북(메타)이 오쿨러스를 인수했으며, 구글·소니·HTC·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들이 XR 투자를 확대하는 등 XR기기가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부상
침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초까지는 XR 시장 투자 과열 조짐이 보였으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환경 등의 한계로 사용자 경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이 위축. 이후 2년간 다수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
회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 시장에 남은 업체들이 하드웨어 강화, 콘텐츠 개발 등에 투자해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회복 기조로 진입 • '19년 전 세계에 5G 이동통신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반응 속도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 등으로 화질이 향상되는 등 사용자 경험이 지속 성장 • 또한 '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VR 게임, 가상회의 등 엔터테인먼트 및 통신 관련 수요가 증가 • 이후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메타·소니 등 글로벌 업체들이 XR기기 투자 및 출시를 확대하는 등 유망 분야로서 잠재력이 확대 • 특히 '23.2월 삼성전자가 퀄컴·구글과 XR기기 개발을 위한 협업 진행을 발표했으며, 6월엔 애플이 X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하는 등에 따라 시장이 고속 성장 단계로 진입할 전망 ※ 삼성전자는 '15년 VR 전문기업 오쿨러스와 협업한 모바일 기반 VR 헤드셋 '기어 VR'을 출시했으나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후 올해 시장 재진입을 예고

자료 : 딜로이트, 메타버스 리포트: 눈 앞에 온 미래, 2022.6. / 언론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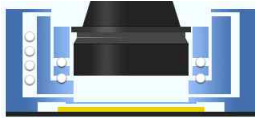

□ (업체 동향) 카메라 모듈 시장의 호황 지속 전망에 힘입어 업체들은 투자를 확대

- 글로벌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사업 역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는 폴디드 줌 단독 공급, 전장용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 **(LG이노텍)**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카메라 모듈 공장의 생산 능력(CAPA)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
 - ※ 베트남 생산법인은 LG이노텍 광학 솔루션 부문 매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장 증설을 통해 '27년까지 약 60%로 비중을 확대할 계획(NH투자증권, '23.6월)
 - 투자 기간은 '23.7월부터 '25.12월까지로 신설 공장은 '24.하반기 완공 후 '25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하이퐁시로부터 전력 확대를 위한 변전소 추가 설치,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을 예정
 - 이에 따라 베트남 공장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미·과주 등 국내 생산라인에서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등 효율적 설계를 통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
 - ※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의 주요 생산품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로 '22년 매출액 4조 3,479억 원, 당기순이익 1,459억 원을 기록하는 등 LG이노텍 해외 법인 중 최대 규모를 자랑
 - 또한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에 따른 노무비 절감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
 - 한편 동 사는 '23.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5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 프로맥스에 일반 카메라 모듈 대비 평균판매단가가 높은 폴디드 줌 모듈을 단독으로 공급할 예정



- ※ 폴디드줌은 망원 렌즈를 가로로 설계해 빛을 프리즘으로 꺾어 이미지센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돌출 현상 해결이 가능
- (삼성전기) '23.3월 OIS(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를 탑재해 흔들림 보정 각도를 기존 제품 (1.5도) 대비 2배 향상시킨 2억 화소급 카메라 모듈을 공개하는 등 고품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자랑
 - ※ 보정 각도는 사진 촬영 시 발생하는 흔들림 정도를 각도로 환산했을 때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며, 보정 각도가 클수록 큰 떨림 보정이 가능
- OIS 보정 각도를 2배 늘리기 위해서는 렌즈를 이동시키는 구동 거리도 약 2배로 늘어나야 하고 구동에 필요한 부품수도 많아져 모듈 크기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동 시는 최적의 설계를 통해 이전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듈 크기를 최소화해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해결
 - ※ OIS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빛 노출 시간이 길어지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원거리 피사체의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탑재가 확대될 전망
- 또한 대구경 렌즈를 μm 단위로 정밀하게 구동하기 위해 고감도 센서를 적용한 볼가이드(Ball Guide) 방식의 OIS Actuator를 적용해 내구성·정확성을 확보했으며, 소비전력도 줄여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
 - ※ 2억 화소급의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는 픽셀 수가 늘어나면 저조도에서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도록 대구경의 밝은 렌즈 설계가 필요
- 한편 동 시는 IT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카메라 모듈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장向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

표 2-8 Actuator 기능 및 종류

Actu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렌즈를 담는 통인 베렐을 움직이게 해 주는 부품으로 렌즈를 고속 또는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초점을 맞추거나 손 떨림 보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AF(Auto-Focus), OIS, 광학 줌 등이 가능 	
Ball Guide	Sp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볼로 베렐을 움직이는 방식 빠르고 정밀한 구동이 가능하며 적은 배터리 소모, 뛰어난 내구성 등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프링으로 베렐을 움직이는 방식 충격 시 스프링 변형 및 단선 발생, 많은 배터리 소모 등 단점이 존재하나 경제성·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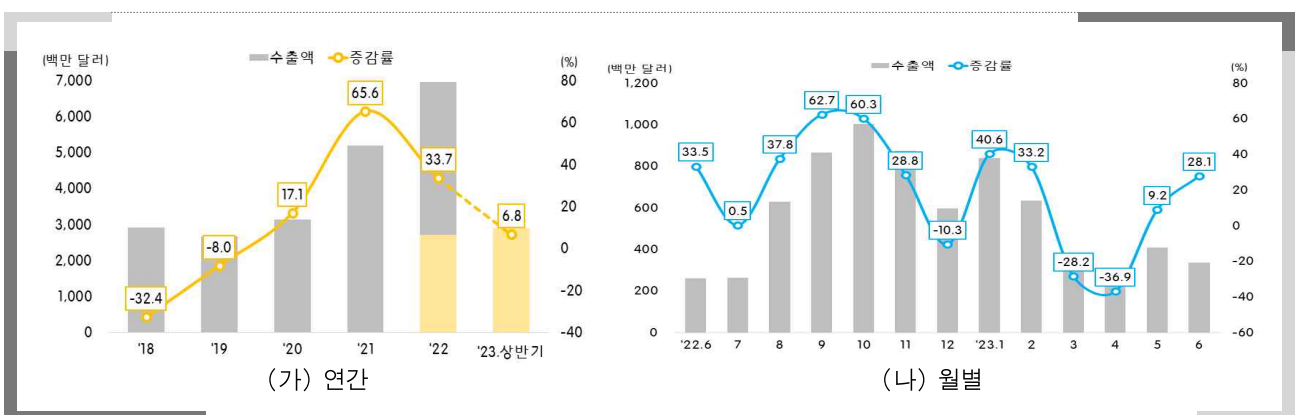
자료 : 삼성전기

□ (수출 동향) 스마트폰·자율주행차·XR기기 등 주요 시장 성장으로 카메라 모듈 수출도 증가

- 스마트폰 카메라 고성능화 및 탑재 수 증가, 자율주행차·XR기기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등장 등이 카메라 모듈 시장 확대를 견인하면서 수출도 증가를 기대

- **(연간)** '15년(11억 4,046만 달러, 427.8%↑) 세 자릿수 고성장 달성 후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18년(29억 1,824만 달러, △32.4%) 4년 만에 하락 전환 후 2년 연속 내림세 지속
- 다만 '20년(31억 4,438만 달러, 17.1%↑)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승 전환 후 '21년(52억 615만 달러, 65.6%↑)에는 '06년(67억 1,473만 달러, 40.5%↑) 후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상회
- 이후 '22년(69억 6,184만 달러, 33.7%↑)에는 70억 달러에 육박하는 호조를 기록하며 역대 연간 수출 최대를 달성
 - ※ 카메라 모듈 역대 상위 연간 수출(억 달러) : (1위, '22년) 69.6, (2위, '06년) 67.1, (3위, '21년) 52.1
- '23년 수출(상반기 기준, 29억 377만 달러, 6.8%↑)은 상반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4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
 - ※ 카메라 모듈 상반기 기준 역대 상위 수출(억 달러) : (1위, '06년), 31.4, (2위, '23년) 29.0, (3위, '22년) 27.2
- **(월별)** '22.10월(10억 375만 달러, 60.3%↑)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해 최초로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며 역대 월별 수출액 1위를 달성
- 또한 '22.11월(8억 7,680만 달러, 28.8%↑)까지 26개월 연속 성장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22.12월(5억 9,931만 달러, △10.3%) 하락 전환
- 이후 '23.1월(8억 4,034만 달러, 40.6%↑) 반등 후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으나, '23.3월(3억 7,466만 달러, △28.2%) 반락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 다만 '23.5월(4억 986만 달러, 9.2%↑) 상승 전환 후 '23.6월(3억 3,576만 달러, 28.1%↑)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상승 궤도에 진입

그림 2-6 | 연간 및 월별 카메라 모듈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 수출이 증가
 - 최대 교역국인 중국(홍콩 포함, 2억 3,898만 달러, 45.2%↑)과 국내 업체들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5,498만 달러, 15.3%↑)은 2개월 연속 성장을 기록



- 다만 미국(1,908만 달러, △27.5%), 일본(363만 달러, △44.0%) 등 주요국 수출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

표 2-9 | 카메라 모듈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442.9	26.1	78.2	중국	235.5	47.1	70.1	2,232.6	17.1	76.9
2	베트남	919.6	47.2	13.2	베트남	55.0	15.3	16.4	385.3	-23.5	13.3
3	미국	295.7	288.9	4.2	미국	19.1	-27.5	5.7	116.3	-26.2	4.0
4	일본	76.0	612.6	1.1	일본	3.6	-44.0	1.1	27.3	-36.6	0.9
5	홍콩	39.1	69.5	0.6	홍콩	3.5	-23.5	1.0	19.1	-13.5	0.7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日,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며 양국의 장기간 수출 갈등 종료

-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 일환으로 단행했던 對 한국 수출규제('19.7월)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어 주목
 - '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韓 대법원의 판결에 '19.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對韓수출 규제(포괄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를 단행하였고 '19.8.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갈등 본격화
 - ※ 개별수출허가는 일본 수출 기업이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건 단위로 일일이 日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
 - 이에 '19.9.11일 한국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한일정상회담 무산 등 양국 갈등의 골이 심화
 - 그러나 '23.3월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이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회담('23.3.16~17일)을 앞두고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23.3.14~16일)'가 개최되었고, 일본은 44개월 만에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 해제를, 한국 또한 WTO 제소 취하를 진행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
 - 또한 '23.6.27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⁹⁾에 복원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며 6.30일 공포 후 7.21일부터 시행해 '19년부터 4년간 지속됐던 한국 대상의 수출 규제가 마침내 모두 종료. 양국 교역 상 발생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 일본은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 그룹A)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 한편 한국은 '23.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원

○ (참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영향

	품목	대처 방안	결과
전략물자	불화수소	• 중국산·대만산과 더불어 국내산 제품으로 교체 확대 ※ 對일본 수입 비중(%) : ('18)41.9 → ('20)12.9 → ('22)7.7 ※ 對중국 수입 비중(%) : ('18)52.0 → ('20)74.8 → ('22)80.1 ※ 국내는 솔브레인이 '20.1월부터 순도 12나인의 불화수소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국내 수요 70% 대응 가능)	• (금) 국내 소재 업체의 성장 • (부) 중국·대만 점유율 급상승으로 타국이 반사이익을 수혜 - '22년 전년 대비 국가별 수출 증감률(%) ※ 일본(엔): (對세계)△57.5, (對한국)△76.7 ※ 중국(달러): (對세계)3.9↑, (對한국)46.4↑ ※ 대만(달러): (對세계)127.9↑, (對한국)141.0↑
	불화 폴리이미드	• 규제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국산화가 진행	• (금) 국산화로 대체 가속
	EUV 포토레지스트	• 벨기에 소재 일본 업체의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조달	• (부) 물류비용 등의 발생으로 수입 단가가 이전 대비 5.4배 높아져 수입 비용이 상승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3.3. 정리

9) 한국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 시 심사기간은 기존 15일 → 5일로 단축, 개별수출허가의 신청 서류도 5→3종류로 축소



-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피해가 우려됐으나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취해 예상과 달리 타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
- 다만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 과열로 일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 속 韓은 소재 수입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국산화를 위한 시간·비용 소모를, 日은 소재 업체의 실적 하락 등으로 주춤한 반면 중국·대만 등은 반사이익 수혜를 누리며, 한·일 양국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

□ 美·中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속,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에 공급망 리스크 우려가 확대

- 中,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8.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시행을 예고
 - 중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 강화와 일본·네덜란드 등의 반중 동참 행보 등에 반발하며 8.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등의 품목 수출 통제¹⁰⁾를 시행할 것이라 발표('23.7.3일)
 - ※ 일각에서는 7.6~9일에 진행된 미국의 방중 행보를 앞두고 중국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
 - ※ (일) '23.3.31일 반도체 장비 등 23개 첨단 제품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발표하며 5월 개정안 공포 후 7.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였고, (네) 네덜란드도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6.30일 새로운 규제안 발표와 동시에 9.1일 도입을 예고
 - 특히 중국은 전 세계 갈륨·게르마늄 생산의 약 9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최대 생산국으로 수출 통제 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갈륨 등의 유통에 어려움이 발생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제조비용 상승 및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
 - ※ 질화갈륨(GaN)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이며 GaN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 높은 전력 효율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삼성전자가 '25년부터 GaN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 예고
 - 이후 7.6~9일 美 재닛 엘런 장관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 개선이 기대됐으나 여전한 이견차가 존재. 다만 소통 채널 구축만큼은 지속키로 합의

표 2-10 미·중 반도체 갈등 일지 및 갈륨·게르마늄 주 사용처와 생산비중(2016~2020년 평균)

날짜	주요 내용	갈륨	게르마늄				
'22.10	• (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안 발표	주 사 용 처	• 차세대 전력 반도체, EV 인버터, 태양광 패널, LED 등				
'23.5	• (中) 보안 위험을 근거로 마이크론 중국 내 판매 제재						
7.3일	• (中) 반도체 원자재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예고						
7.5일	• (美) 中에 아마존·MS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 차단을 검토	생 산 비 중	<table><tr><td>중국, 94%</td><td>러시아, 2%</td><td>우크라이나, 2%</td><td>기타, 2%</td></tr></table>	중국, 94%	러시아, 2%	우크라이나, 2%	기타, 2%
중국, 94%	러시아, 2%			우크라이나, 2%	기타, 2%		
7.6일	• (美) 공자학원 등 中 지원 받는 美 대학 연구비 지원 중단						
7.19일	• (中) 세펑 주미중국대사 '美 투자 규제 추가 조치 시 보복할 것이라 경고						
~7월	• (美) AI 등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와 대중 투자 제한 등을 추진 중인 상황						
(가) 미·중 반도체 갈등 일지		(나) 갈륨·게르마늄 주 사용처와 생산비중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조선일보, 7.5일(원소스 미국 지질조사국, EC)

10) 갈륨·게르마늄 등을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

- 중국의 광물 통제 행보에 이어 美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¹¹⁾는 반대 의사를 강력 표출
 - '22.10월 美 정부는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이어 '23.7~8월 내로 저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대중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조치와 중국 첨단 산업 부문에 대한 美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도입 등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
 - ※ 그간 엔비디아인텔 등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을 낮추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여 중국 시장에 판매를 지속해왔으나 美 정부의 규제 강화 시 우회로가 전면 차단돼 매출 피해가 불가피
 - 이에 7.17일 美 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제재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이 우려된다고 반대 성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반발.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전까지 추가 제한 조치 시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
 - ※ SIA는 미국이 현재 적용중이거나 잠재적으로 적용 예정인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①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②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③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을 업계 전문가와 평가 협의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
 - 뿐만 아니라 중국 세평 주미대사도 미국이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 부문에 대한 대중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맞대응을 시사(7.19일)
-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선제적인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오히려 中의 피해가 우려
 - 중국이 갈륨 등 자원 생산국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막대하나 해당 희소 금속을 중간재·최종재로 가공하는 제련 기술은 일본·미국·독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순도로 정제된 갈륨은 중국도 오히려 일본·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 자체가 자충수라는 지적 제기
 - ※ 갈륨 처리 기술은 독일의 프라이베르그화합물질,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AXT가 우수
 - 또한 대만 TSMC, 독일 인파니언테크놀로지스 등 모두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타격이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나 중국의 수출 통제 종료 시점이 불투명한 점,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공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향후 동향에 대한 예의주시는 필요

○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

- (반도체) 한국이 주력 중인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 상 갈륨이 사용되지 않고,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은 업계가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해 단기적으로는 韓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 비메모리 차세대 질화갈륨(GaN) 전력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만 갈륨이 사용 중이며, 7.4일 기준 광해광업공단이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도 확보하고 있다 밝혀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
- (디스플레이) 또한 OLED 디스플레이 소재에 갈륨이 사용되긴 하나 현재 중국 이외에도 미국·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

11)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와 더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글로벌 업체도 소속

□ 日,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외교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반도체 시장 부활에 총력전

- 미·중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도약을 위해 미국·EU·인도 등과의 동맹을 강화
 - '90년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던 일본은 점차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00년대부터는 후발 주자 대만·한국 등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며 입지가 약화
 -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시장 혼란을 틈타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EU·인도 등과의 외교력을 기반으로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양상
 - 먼저 '22.5.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대만에 뒤쳐진 첨단 반도체 개발·양산 협력을 위해 '반도체 협력 기본 원칙'을 합의한 데 이어 '23.5월 미국 정부와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공동 수립기로 합의
 - ※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은 개방적인 시장, 투명성,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미·일 이외에도 우방국 및 우방 지역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양국의 긴급 상황(반도체 공급 부족 등) 발생 시에도 협조기로 합의
 - 이어 '23.7.4일 EU와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 분배 기준,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인재 육성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7.19일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상 중인 인도와도 동맹을 결성하며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박차
 - ※ 일본은 EU와의 반도체 연계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7.13일 EU·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합의. 일본은 반도체 수요 대부분을 대만 등 해외에 크게 의존해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존재해 EU와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마련
 -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를 기반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EU·일본·미국의 삼각 동맹도 강화될 전망
 - ※ 미국·EU, 미국·일본은 각각 반도체 보조금 및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EU·일본 동맹 체결로 삼각 구도가 구축
- 미국·일본·EU 등의 협공으로 메모리 시장을 주도중인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상실이 우려. 일각에서는 기술 경쟁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제시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 예산을 마련.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대만산 반도체 의존 축소로 이어져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우려
 - 특히 일본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주요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의 국내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 ※ 美 마이크론은 일본 정부로부터 1조 8,4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日 히로시마 지역에 차세대 D램 공장을 구축할 예정('26년 생산 시작). 대만 TSMC도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日 구마모토 1공장에 이어 9조

2,000억 원 규모의 2공장도 신설할 계획

표 2-11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

국가별	지원 금액	주요 내용
중국	240조 원	• '25년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약 1조 위안(약 178조 원)을 투자하고 3,400억 위안은 국가반도체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미국	66조 원	•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66조 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 편성, 세제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
EU	61조 원	• 유럽기업의 반도체 생산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430억 유로(61조 원)를 투자
일본	18조 원	• '22년 7,740억 엔에 이어 '23년 1조 3,000억 엔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금을 편성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474,174	1.3	100.0	388,068	-16.6	100.0	1,582,775	-14.7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77,696	-0.8	67.2	242,185	-23.7	62.4	1,002,694	-21.1	63.4
- 전자부품	2,264,882	-2.4	41.4	128,677	-33.4	33.2	540,673	-30.9	34.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630	0.1	3.4	10,496	-41.8	2.7	42,857	-36.9	2.7
- 통신 및 방송기기	360,569	-2.4	6.6	30,663	-6.2	7.9	129,388	-0.8	8.2
- 영상 및 음향기기	86,049	1.0	1.6	6,592	-16.0	1.7	26,981	-14.5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82,565	4.4	14.3	65,757	-0.1	16.9	262,794	2.0	16.6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79,322	3.5	16.1	76,853	6.1	19.8	305,513	5.8	19.3
- 통신서비스	377,332	0.6	6.9	31,541	0.1	8.1	126,448	1.2	8.0
· 유선통신서비스	102,469	0.2	1.9	8,744	2.7	2.3	34,801	3.3	2.2
· 무선통신서비스	252,783	0.5	4.6	20,979	-0.5	5.4	84,345	0.6	5.3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080	3.0	0.4	1,818	-5.3	0.5	7,302	-2.2	0.5
- 방송서비스	227,128	7.1	4.1	19,097	3.4	4.9	74,231	0.8	4.7
· 지상파방송서비스	42,703	6.9	0.8	3,248	-2.7	0.8	12,378	-7.8	0.8
· 유료방송서비스	73,038	4.2	1.3	6,499	8.9	1.7	25,955	7.6	1.6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110,946	9.3	2.0	9,313	1.9	2.4	35,735	-0.5	2.3
· 기타방송서비스	441	-8.0	0.0	37	10.4	0.0	163	5.8	0.0
- 정보서비스	274,862	4.9	5.0	26,215	16.9	6.8	104,834	16.4	6.6
· 정보인프라서비스	45,770	4.8	0.8	3,985	4.1	1.0	15,851	4.5	1.0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9,092	4.9	4.2	22,230	19.5	5.7	88,983	18.9	5.6
○ 소프트웨어	917,156	8.8	16.8	69,030	-8.6	17.8	274,569	-7.4	17.3
- 패키지 소프트웨어	199,522	15.9	3.6	15,389	1.8	4.0	61,662	4.5	3.9
- 게임 소프트웨어	192,832	7.0	3.5	14,332	-4.9	3.7	58,005	-3.5	3.7
- IT 서비스	524,802	6.9	9.6	39,310	-13.4	10.1	154,902	-12.6	9.8

자료 : KEA, KAIT, 2023.7.



2

2023년 6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1월	554.6	196.1	20.4	606.1	123.4	14.5	-51.5	72.6
2월	541.6	188.5	23.6	534.8	114.0	24.0	6.7	74.5
3월	637.9	232.6	33.6	638.1	128.7	17.5	-0.2	103.9
4월	578.4	199.3	16.9	602.1	121.4	12.5	-23.7	77.9
5월	615.9	202.0	13.9	631.7	126.1	19.9	-15.8	75.9
6월	576.8	206.0	6.8	601.5	130.5	23.3	-24.7	75.5
7월	602.4	193.1	-0.9	652.6	132.3	16.8	-50.2	60.7
8월	566.1	192.7	-4.8	660.3	135.2	18.7	-94.2	57.5
9월	571.8	208.5	-2.3	610.1	129.3	13.7	-38.4	79.1
10월	524.3	178.5	-10.3	591.7	137.6	13.6	-67.4	40.9
11월	517.7	166.2	-22.7	588.5	128.3	0.5	-70.8	37.9
12월	548.5	168.8	-23.7	596.2	117.9	-10.9	-47.7	50.9
2023년	3,073.0	849.5	-30.6	3,336.1	682.0	-8.4	-263.1	167.5
1/4분기	1,513.3	416.7	-32.5	1,739.3	351.0	-4.1	-225.9	65.7
2/4분기	1,559.7	432.8	-28.7	1,596.8	331.0	-12.5	-37.2	101.8
1월	463.7	130.9	-33.2	589.1	122.4	-0.9	-125.4	8.6
2월	500.1	128.1	-32.1	553.3	110.2	-3.4	-53.3	17.9
3월	549.5	157.7	-32.2	596.8	118.5	-7.9	-47.3	39.3
4월	495.1	127.7	-35.9	522.3	104.6	-13.9	-27.3	23.1
5월	522.2	144.5	-28.5	543.4	111.9	-11.3	-21.2	32.6
6월	542.4	160.6	-22.1	531.1	114.5	-12.3	11.3	46.1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6,056	-22.1	100.0	84,949	-30.6	100.0
○ 전자부품	166,917	1.1	71.6	11,482	-24.6	71.5	57,766	-34.6	68.0
- 반도체	130,865	1.7	56.1	8,991	-27.9	56.0	43,927	-36.8	51.7
· 메모리반도체	73,753	-10.5	31.6	4,768	-38.8	29.7	21,368	-49.7	25.2
· 시스템반도체	50,670	27.5	21.7	3,777	-9.6	23.5	19,758	-17.5	23.3
- 디스플레이	24,413	-1.0	10.5	1,587	-11.1	9.9	8,815	-30.6	10.4
- 전자관	6	20.3	0.0	1	-18.7	0.0	5	82.1	0.0
- 수동부품	2,148	-8.4	0.9	191	5.1	1.2	1,177	6.4	1.4
PCB	5,952	2.8	2.6	411	-18.4	2.6	2,231	-28.8	2.6
- 접속부품	3,312	-0.8	1.4	284	5.0	1.8	1,516	-12.3	1.8
- 기타전자부품	148	-7.6	0.1	12	10.1	0.1	65	-16.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865	-48.7	5.4	4,421	-56.3	5.2
- 컴퓨터	1,019	-55.6	0.4	83	-9.9	0.5	482	-6.9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783	-50.9	4.9	3,939	-59.0	4.6
·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28	23.2	0.8	720	7.3	0.8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10.8	0.2	36	-4.1	0.2	191	-17.3	0.2
·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534	-60.4	3.3	2,588	-68.2	3.0
○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007	-15.5	6.3	7,039	-19.3	8.3
- 통신기기	17,573	8.7	7.5	1,000	-15.8	6.2	6,999	-19.4	8.2
·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7	-3.6	0.5	519	-14.5	0.6
·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913	-16.8	5.7	6,480	-19.8	7.6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779	-18.8	4.9	5,769	-21.1	6.8
※ 통신장비	2,901	33.2	1.2	221	-3.3	1.4	1,230	-10.8	1.4
- 방송용 장비	74	-87.0	0.0	6	78.5	0.0	40	6.1	0.0
○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52	-18.2	0.9	878	-23.6	1.0
- 영상기기	1,250	-18.1	0.5	94	-15.3	0.6	489	-29.7	0.6
· TV	735	-31.0	0.3	48	-25.4	0.3	247	-43.9	0.3
LCD TV	48	42.8	0.0	0	-88.3	0.0	7	-73.4	0.0
TV 부분품	664	-34.5	0.3	45	-24.2	0.3	225	-44.2	0.3
· 셋탑박스	18	-17.8	0.0	2	-15.5	0.0	10	-8.1	0.0
- 음향기기	840	4.8	0.4	55	-22.9	0.3	367	-15.5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3	-14.3	0.0	22	17.1	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550	10.9	15.9	14,846	5.0	17.5
-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458	0.6	2.9	2,949	-12.1	3.5
- 사무용기기	343	-19.7	0.1	35	10.3	0.2	176	9.9	0.2
- 의료용기기	2,790	8.8	1.2	253	-0.1	1.6	1,405	1.8	1.7
- 전기 장비	13,578	13.9	5.8	1,244	15.7	7.7	6,841	4.9	8.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962	18.9	6.0	5,141	7.3	6.1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1,450	-12.3	100.0	68,199	-8.4	100.0
○전자부품	89,481	19.9	58.7	6,528	-17.9	57.0	37,115	-14.3	54.4
- 반도체	75,146	21.8	49.3	5,404	-19.3	47.2	30,957	-13.6	45.4
· 메모리반도체	25,094	16.3	16.5	1,549	-37.9	13.5	9,227	-30.3	13.5
· 시스템반도체	41,292	31.2	27.1	3,111	-8.2	27.2	17,808	-1.9	26.1
- 디스플레이	4,970	28.5	3.3	396	-11.3	3.5	2,050	-24.6	3.0
- 전자관	75	17.1	0.0	7	62.0	0.1	32	-5.1	0.0
- 수동부품	2,563	-8.5	1.7	220	-2.5	1.9	1,217	-9.8	1.8
PCB	3,561	14.8	2.3	221	-28.1	1.9	1,319	-24.9	1.9
- 접속부품	2,375	-5.7	1.6	217	6.3	1.9	1,174	-4.3	1.7
- 기타전자부품	697	60.0	0.5	56	3.3	0.5	328	2.5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1,078	-18.4	9.4	7,783	-15.5	11.4
- 컴퓨터	10,112	-1.2	6.6	594	-27.7	5.2	4,235	-24.6	6.2
- 주변기기	7,341	12.7	4.8	484	-2.9	4.2	3,548	-1.2	5.2
·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88	-27.7	0.8	576	-23.5	0.8
· 프린터(부분품포함)	941	-2.2	0.6	73	-10.7	0.6	468	-6.0	0.7
·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239	21.6	2.1	1,967	16.6	2.9
○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945	-17.7	8.3	6,436	-11.7	9.4
- 통신기기	15,010	-5.1	9.8	926	-18.2	8.1	6,348	-11.9	9.3
·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43	-6.7	1.2	1,006	12.0	1.5
·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784	-20.0	6.8	5,341	-15.3	7.8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530	-16.8	4.6	3,658	-16.5	5.4
※ 통신장비	5,730	1.6	3.8	397	-20.0	3.5	2,689	-4.8	3.9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18	21.7	0.2	88	5.9	0.1
○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40	-26.1	2.1	1,666	-10.4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36	-28.2	1.2	886	-22.7	1.3
· TV	1,444	-23.6	0.9	71	-38.7	0.6	567	-30.4	0.8
LCD TV	779	-16.2	0.5	39	-26.1	0.3	330	-23.7	0.5
TV 부분품	377	-34.4	0.2	19	-50.5	0.2	112	-50.7	0.2
· 셋탑박스	192	-10.4	0.1	24	-22.1	0.2	101	-5.5	0.1
- 음향기기	1,174	6.9	0.8	90	-11.0	0.8	609	9.6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14	-58.6	0.1	170	9.6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659	15.0	23.2	15,199	19.0	22.3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451	3.9	3.9	2,268	-8.8	3.3
-사무용기기	37	14.8	0.0	3	-4.8	0.0	20	13.1	0.0
-의료용기기	2,379	4.1	1.6	223	18.6	2.0	1,265	8.0	1.9
-전기 장비	11,088	34.3	7.3	1,227	32.8	10.7	7,360	48.6	10.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893	58.4	7.8	5,167	82.9	7.6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6월 당월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6,056	11,450	4,606	16,750
○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11,482	6,528	4,954	20,651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8,991	5,404	3,587	12,970
· 메모리반도체	73,753	25,094	48,660	4,768	1,549	3,219	12,140
· 시스템반도체	50,670	41,292	9,378	3,777	3,111	666	1,950
- 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1,587	396	1,191	6,765
- 전자관	6	75	-69	1	7	-7	-27
- 수동부품	2,148	2,563	-416	191	220	-29	-40
PCB	5,952	3,561	2,392	411	221	190	912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84	217	67	342
- 기타전자부품	148	697	-549	12	56	-43	-26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865	1,078	-213	-3,363
- 컴퓨터	1,019	10,112	-9,093	83	594	-511	-3,753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783	484	299	391
·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28	88	40	144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941	-482	36	73	-37	-277
·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534	239	295	621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007	945	62	603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000	926	74	651
·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7	143	-56	-488
·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913	784	130	1,139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779	530	250	2,110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221	397	-176	-1,459
- 방송용 장비	74	172	-98	6	18	-12	-49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52	240	-88	-788
- 영상기기	1,250	2,088	-838	94	136	-42	-398
· TV	735	1,444	-709	48	71	-23	-320
LCD TV	48	779	-730	0	39	-39	-323
TV 부분품	664	377	287	45	19	26	113
· 셋탑박스	18	192	-174	2	24	-23	-91
- 음향기기	840	1,174	-334	55	90	-35	-242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3	14	-11	-14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550	2,659	-109	-353
-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458	451	7	681
- 사무용기기	343	37	305	35	3	32	156
-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53	223	30	140
-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244	1,227	17	-51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962	893	69	-26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6,056	-22.1	100.0	84,949	-30.6	100.0
○ 아시아	180,075	2.0	77.2	12,291	-21.2	76.6	64,289	-31.7	75.7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6,745	-25.7	42.0	34,555	-36.5	40.7
- 일 본	4,429	2.7	1.9	365	-10.3	2.3	2,039	-12.2	2.4
- ASEAN	53,710	9.5	23.0	3,647	-17.5	22.7	20,633	-24.1	24.3
· 싱가포르	6,924	45.0	3.0	520	-17.7	3.2	2,420	-29.1	2.8
· 인 니	1,122	25.7	0.5	80	-15.7	0.5	556	-2.4	0.7
· 말 련	2,944	17.4	1.3	236	-6.7	1.5	1,288	-11.7	1.5
· 태 국	1,530	13.0	0.7	131	0.2	0.8	747	-6.5	0.9
· 베트남	36,636	4.3	15.7	2,489	-11.3	15.5	14,260	-22.8	16.8
- 대 만	14,755	16.4	6.3	1,146	-15.1	7.1	4,945	-36.4	5.8
- 인 도	4,533	63.0	1.9	359	19.7	2.2	1,951	-8.7	2.3
○ 북미	30,226	5.0	13.0	2,034	-32.5	12.7	10,922	-31.3	12.9
- 미 국	29,141	4.3	12.5	1,974	-32.6	12.3	10,563	-31.2	12.4
- 캐나다	955	33.7	0.4	41	-44.2	0.3	279	-42.4	0.3
○ 유럽	15,893	4.0	6.8	1,168	-17.2	7.3	6,585	-25.0	7.8
- 유럽연합	13,732	7.5	5.9	966	-21.6	6.0	5,514	-27.0	6.5
· 독 일	3,516	-0.2	1.5	252	-23.7	1.6	1,393	-25.3	1.6
· 프랑스	901	6.7	0.4	79	10.5	0.5	440	-11.5	0.5
· 이탈리아	596	27.0	0.3	32	-49.5	0.2	221	-32.1	0.3
- 영 국	1,062	1.7	0.5	97	-9.3	0.6	454	-30.1	0.5
- 러시아	482	-39.0	0.2	37	40.4	0.2	213	-19.9	0.3
○ 중동	1,680	5.4	0.7	130	0.4	0.8	863	3.4	1.0
- 사우디	327	43.2	0.1	26	-9.2	0.2	182	28.5	0.2
- UAE	522	5.8	0.2	39	-4.0	0.2	250	4.1	0.3
○ 중남미	4,382	1.8	1.9	356	-5.0	2.2	1,866	-19.9	2.2
- 브라질	1,439	-1.3	0.6	94	-21.5	0.6	638	-18.1	0.8
- 멕시코	2,670	6.4	1.1	242	4.9	1.5	1,108	-21.0	1.3
- 칠 레	68	-43.0	0.0	6	42.4	0.0	33	-17.9	0.0
○ 대양주	685	-5.0	0.3	51	1.8	0.3	279	-27.2	0.3
- 호 주	599	-3.0	0.3	43	-3.0	0.3	242	-27.9	0.3
○ 아프리카	280	-9.4	0.1	25	-8.2	0.2	142	2.5	0.2
※ 브릭스	85,990	4.8	36.9	5,248	-26.9	32.7	29,515	-34.3	34.7

자료 : IITP, KTSPI

표 3-7 |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6월 당월			상반기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1,450	-12.3	100.0	68,199	-8.4	100.0
○ 아시아	126,723	12.2	83.1	9,881	-9.7	86.3	57,122	-8.6	83.8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4,258	-26.1	37.2	28,177	-13.7	41.3
- 일 본	13,590	13.5	8.9	1,172	9.3	10.2	6,091	0.1	8.9
- ASEAN	25,741	10.3	16.9	1,933	-3.6	16.9	12,179	-5.1	17.9
· 싱가포르	4,701	15.3	3.1	293	-30.9	2.6	2,003	-5.4	2.9
· 인 니	783	-15.4	0.5	50	-19.4	0.4	371	-6.8	0.5
· 말 련	4,055	12.6	2.7	330	1.0	2.9	2,028	5.3	3.0
· 태 국	2,115	5.4	1.4	184	-4.8	1.6	1,028	-6.3	1.5
· 베트남	12,225	9.4	8.0	925	8.4	8.1	5,822	-9.9	8.5
- 대 만	22,536	26.8	14.8	1,529	-26.9	13.4	9,629	-11.4	14.1
- 인 도	116	10.1	0.1	8	-13.5	0.1	59	1.3	0.1
○ 북미	9,000	-1.0	5.9	719	-10.7	6.3	4,160	-6.8	6.1
- 미 국	8,563	-1.8	5.6	685	-10.9	6.0	3,955	-7.0	5.8
- 캐나다	307	24.7	0.2	26	-2.8	0.2	155	8.0	0.2
○ 유럽	8,719	10.0	5.7	699	-5.2	6.1	4,375	4.2	6.4
- 유럽연합	7,614	10.7	5.0	601	-7.3	5.2	3,818	3.6	5.6
· 독 일	3,523	7.3	2.3	254	-13.7	2.2	1,666	-5.4	2.4
· 프랑스	1,204	29.5	0.8	82	-33.3	0.7	540	-1.2	0.8
· 이탈리아	377	6.0	0.2	29	4.0	0.3	243	42.4	0.4
- 영 국	572	1.8	0.4	56	11.5	0.5	320	19.2	0.5
- 러시아	18	-28.1	0.0	1	-6.5	0.0	5	-44.7	0.0
○ 중동	666	1.7	0.4	52	-49.2	0.5	446	16.9	0.7
- 사우디	1	-53.1	0.0	0	76.0	0.0	1	99.5	0.0
- UAE	9	-80.2	0.0	0	-39.0	0.0	4	-9.0	0.0
○ 중남미	925	-6.0	0.6	90	6.8	0.8	511	9.3	0.7
- 브라질	7	-54.4	0.0	1	-3.2	0.0	5	6.1	0.0
- 멕시코	913	-5.4	0.6	89	6.9	0.8	503	9.2	0.7
- 칠 레	2	88.1	0.0	0	778.7	0.0	1	54.2	0.0
○ 대양주	119	4.2	0.1	8	-21.5	0.1	49	2.4	0.1
- 호 주	98	23.6	0.1	6	-24.1	0.0	34	-10.6	0.1
○ 아프리카	13	-27.5	0.0	1	-68.3	0.0	4	-55.6	0.0
※ 브 릅 스	63,474	8.3	41.6	4,235	-25.0	37.0	27,699	-13.7	40.6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수출	수입	수지	6월 당월			상반기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6,056	11,450	4,606	16,750
○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12,291	9,881	2,411	7,167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6,745	4,258	2,487	6,379
- 일 본	4,429	13,590	-9,161	365	1,172	-807	-4,052
- ASEAN	53,710	25,741	27,968	3,647	1,933	1,714	8,453
· 싱가포르	6,924	4,701	2,223	520	293	226	417
· 인 니	1,122	783	340	80	50	29	184
· 말 련	2,944	4,055	-1,110	236	330	-95	-740
· 태 국	1,530	2,115	-585	131	184	-53	-281
· 베트남	36,636	12,225	24,411	2,489	925	1,563	8,438
- 대 만	14,755	22,536	-7,781	1,146	1,529	-383	-4,685
- 인 도	4,533	116	4,418	359	8	351	1,892
○ 북미	30,226	9,000	21,226	2,034	719	1,315	6,762
- 미 국	29,141	8,563	20,578	1,974	685	1,289	6,608
- 캐나다	955	307	648	41	26	15	125
○ 유럽	15,893	8,719	7,174	1,168	699	469	2,210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966	601	365	1,697
· 독 일	3,516	3,523	-7	252	254	-2	-274
· 프랑스	901	1,204	-303	79	82	-3	-99
· 이탈리아	596	377	219	32	29	4	-23
- 영 국	1,062	572	489	97	56	41	134
- 러시아	482	18	464	37	1	36	209
○ 중동	1,680	666	1,014	130	52	78	417
- 사우디	327	1	326	26	0	26	181
- UAE	522	9	513	39	0	38	246
○ 중남미	4,382	925	3,457	356	90	265	1,356
- 브라질	1,439	7	1,431	94	1	93	633
- 멕시코	2,670	913	1,757	242	89	152	605
- 칠 레	68	2	66	6	0	6	32
○ 대양주	685	119	566	51	8	43	230
- 호 주	599	98	501	43	6	38	208
○ 아프리카	280	13	267	25	1	25	138
※ 브릭스	85,990	63,474	22,516	5,248	4,235	1,013	1,816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87	0.2	100.0	927	-0.7	100.0	4,683	-4.4	100.0
○ 전자부품	3,511	1.2	27.9	246	-18.1	26.6	1,291	-9.0	27.6
- 반도체	2,636	7.0	20.9	187	-18.8	20.2	973	-9.7	20.8
- 디스플레이 패널	151	-54.0	1.2	11	41.0	1.2	66	-0.4	1.4
- 전자관	1	-4.9	0.0	0	44.0	0.0	0	25.0	0.0
- 수동부품	202	16.8	1.6	9	-42.0	1.0	61	-4.0	1.3
- PCB	199	-4.5	1.6	14	-21.5	1.5	70	-18.1	1.5
- 접속부품	269	4.4	2.1	21	-11.1	2.2	102	-2.6	2.2
- 기타 전자부품	52	44.0	0.4	4	-26.4	0.4	20	-8.5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37	4.1	20.2	180	-4.8	19.4	828	-21.1	17.7
- 컴퓨터	1,566	-6.8	12.4	108	-2.5	11.6	486	-23.9	10.4
- 주변기기	971	28.5	7.7	72	-8.1	7.8	342	-16.7	7.3
· 디스플레이장치	217	0.5	1.7	15	-19.2	1.6	66	-35.1	1.4
· 프린터(부품포함)	150	5.9	1.2	11	-10.1	1.2	57	0.8	1.2
· 보조기억장치	138	-25.2	1.1	9	-9.0	0.9	45	-18.5	1.0
· 저장 매체	291	749.1	2.3	25	5.2	2.7	114	-8.6	2.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6	-2.4	1.4	12	-13.9	1.3	60	-16.9	1.3
○ 통신 및 방송기기	2,441	-11.3	19.4	149	-19.7	16.0	843	-10.6	18.0
- 통신기기	2,431	-6.9	19.3	148	-19.6	16.0	839	-10.7	17.9
· 유선통신기기	548	1.9	4.4	35	-9.3	3.7	181	-7.1	3.9
· 무선통신기기	1,501	-27.6	11.9	88	-23.5	9.5	525	-12.2	11.2
- 방송국용 기기	107	-19.5	0.8	8	-12.0	0.9	40	-2.0	0.9
○ 영상 및 음향기기	879	5.1	7.0	68	20.9	7.3	344	11.1	7.3
- 영상기기	326	-19.0	2.6	25	-4.8	2.7	127	-2.0	2.7
- 음향기기	272	1.2	2.2	19	-12.4	2.1	99	0.1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84	12.0	1.5	17	#DIV/0!	1.8	81	87.1	1.7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3,219	5.0	25.6	284	40.6	30.7	1,378	17.0	29.4
- 가정용 기기	1,094	-7.4	8.7	97	-0.1	10.5	459	-0.3	9.8
- 사무용 기기	59	20.4	0.5	5	-6.3	0.5	21	-1.5	0.5
- 의료용 기기	157	-13.6	1.3	13	#DIV/0!	1.5	66	22.7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9	-7.3	2.0	23	1,427.2	2.5	117	52.9	2.5
- 전기 장비	1,644	18.8	13.1	144	47.3	15.5	707	26.1	15.1
· 건전지 및 축전지	636	75.8	5.1	62	30.4	6.7	312	54.8	6.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7,553	-8.0	100.0	495	-9.2	100.0	2,458	-20.8	100.0
○ 전자부품	5,656	-3.4	74.9	354	-19.2	71.5	1,781	-24.6	72.5
- 반도체	4,762	-4.3	63.0	301	-19.6	60.8	1,505	-24.5	61.2
- 디스플레이 패널	405	28.7	5.4	23	2.9	4.6	124	-24.2	5.0
- 전자관	2	-18.1	0.0	0	23.3	0.0	1	-4.7	0.0
- 수동부품	190	-14.9	2.5	11	-35.9	2.2	57	-29.0	2.3
- PCB	107	-12.7	1.4	6	-25.4	1.3	31	-31.3	1.3
- 접속부품	186	-12.4	2.5	13	-20.6	2.6	63	-19.9	2.6
- 기타 전자부품	4	-4.2	0.1	0	-31.1	0.1	1	-21.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512	-3.5	6.8	38	-9.1	7.6	165	-26.7	6.7
- 컴퓨터	44	1.7	0.6	7	122.7	1.4	23	34.3	0.9
- 주변기기	469	-3.9	6.2	31	-19.6	6.2	141	-31.8	5.8
· 디스플레이장치	4	-23.6	0.1	0	26.0	0.1	2	2.7	0.1
· 프린터(부품포함)	54	-14.2	0.7	4	-3.2	0.9	21	-3.2	0.9
· 보조기억장치	230	-21.4	3.0	13	-36.2	2.6	56	-47.6	2.3
· 저장 매체	109	129.1	1.4	7	-13.5	1.5	35	-26.2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9.7	1.0	6	17.7	1.2	28	-7.4	1.1
○ 통신 및 방송기기	277	-56.4	3.7	18	-4.8	3.6	90	-13.5	3.7
- 통신기기	276	-52.1	3.7	18	-4.9	3.6	90	-13.7	3.7
· 유선통신기기	102	9.1	1.3	8	3.4	1.6	35	0.2	1.4
· 무선통신기기	60	-87.5	0.8	5	131.5	1.0	26	19.4	1.0
- 방송국용 기기	25	-9.8	0.3	2	8.7	0.4	9	-1.9	0.4
○ 영상 및 음향기기	259	11.4	3.4	17	0.4	3.4	91	-5.7	3.7
- 영상기기	190	1.6	2.5	12	8.9	2.4	66	-1.6	2.7
- 음향기기	39	1.6	0.5	2	-45.5	0.5	12	-30.5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7	-12.4	0.1	1	-	0.2	4	55.8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49	-11.4	11.2	69	125.3	13.9	330	4.9	13.4
- 가정용 기기	194	-11.0	2.6	15	-9.8	3.1	70	-14.0	2.8
- 사무용 기기	4	-14.2	0.1	0	-20.8	0.0	1	-37.1	0.0
- 의료용 기기	116	-14.6	1.5	12	-	2.4	53	33.4	2.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4	-20.3	4.2	26	26,342.7	5.3	130	21.0	5.3
- 전기 장비	187	-9.0	2.5	12	-8.2	2.5	62	-16.9	2.5
· 건전지 및 축전지	62	-15.8	0.8	4	-13.1	0.8	19	-27.6	0.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3,020	6.1	100.0	244	0.8	100.0	1,238	1.3	100.0
○ 전자부품	1,045	3.2	34.6	76	-11.8	31.1	381	-12.0	30.8
- 반도체	783	0.9	25.9	54	-16.3	22.0	269	-16.8	21.7
- 디스플레이 패널	34	-3.1	1.1	3	-7.8	1.1	13	-13.4	1.1
- 전자관	4	2.7	0.1	0	20.1	0.1	2	31.2	0.1
- 수동부품	41	7.5	1.3	3	-4.9	1.3	17	-4.4	1.3
- PCB	13	9.8	0.4	1	-23.3	0.4	5	-12.5	0.4
- 접속부품	167	14.5	5.5	15	6.2	6.0	74	8.0	6.0
- 기타 전자부품	3	32.6	0.1	0	37.3	0.1	1	-0.6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0	7.7	13.9	32	6.3	13.2	174	6.0	14.0
- 컴퓨터	176	4.9	5.8	14	3.5	5.6	73	4.2	5.9
- 주변기기	244	9.9	8.1	19	8.5	7.6	101	7.4	8.2
· 디스플레이장치	18	21.7	0.6	1	-5.0	0.6	7	-10.8	0.5
· 프린터(부품포함)	35	1.7	1.2	3	-5.4	1.1	15	3.4	1.2
· 보조기억장치	55	7.3	1.8	5	49.1	1.9	22	16.5	1.8
· 저장 매체	81	12.4	2.7	6	-1.0	2.3	28	-10.3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5	11.2	1.8	4	6.1	1.7	28	35.0	2.3
○ 통신 및 방송기기	394	1.5	13.0	32	5.2	13.2	174	11.3	14.0
- 통신기기	382	10.1	12.6	31	4.8	12.7	168	11.2	13.6
· 유선통신기기	196	15.7	6.5	18	19.8	7.2	94	28.3	7.6
· 무선통신기기	167	-6.1	5.5	12	-9.8	4.9	66	-5.9	5.3
- 방송국용 기기	30	5.0	1.0	3	27.0	1.2	14	25.0	1.2
○ 영상 및 음향기기	104	21.2	3.4	9	12.7	3.8	45	6.8	3.6
- 영상기기	30	-7.4	1.0	2	-8.0	1.0	11	-14.2	0.9
- 음향기기	38	5.6	1.3	3	9.9	1.4	17	6.9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6.1	0.6	2	44.0	0.6	8	23.1	0.6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58	9.0	35.0	94	8.8	38.7	465	8.9	37.5
- 가정용 기기	170	0.3	5.6	14	0.9	5.9	72	2.4	5.8
- 사무용 기기	11	13.8	0.4	1	-7.3	0.3	4	3.0	0.3
- 의료용 기기	301	8.2	10.0	28	14.7	11.6	139	15.3	11.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0.2	9.8	26	6.8	10.5	126	5.7	10.2
- 전기 장비	251	15.6	8.3	23	10.1	9.4	111	9.1	8.9
· 건전지 및 축전지	58	11.9	1.9	6	29.6	2.4	27	19.0	2.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5월 당월			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986	10.5	100.0	545	-5.2	100.0	2,600	-6.3	100.0
○ 전자부품	1,247	12.4	17.9	105	-5.4	19.2	485	-4.0	18.7
- 반도체	967	12.5	13.8	82	-5.2	15.1	373	-4.8	14.4
- 디스플레이 패널	29	-18.4	0.4	3	-0.1	0.5	12	-0.1	0.4
- 전자관	3	-4.1	0.0	0	-30.7	0.0	1	-7.7	0.0
- 수동부품	50	17.9	0.7	4	-20.6	0.7	18	-16.4	0.7
- PCB	28	18.5	0.4	2	-6.5	0.4	10	-2.3	0.4
- 접속부품	162	16.5	2.3	14	-1.4	2.5	67	4.3	2.6
- 기타 전자부품	9	31.4	0.1	1	-22.8	0.1	3	-8.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68	6.2	23.9	120	-7.1	21.9	532	-18.8	20.5
- 컴퓨터	1,015	3.3	14.5	80	8.4	14.6	329	-15.0	12.6
- 주변기기	653	11.2	9.3	40	-27.8	7.3	204	-24.3	7.8
· 디스플레이장치	112	11.1	1.6	7	-28.3	1.3	33	-37.1	1.3
· 프린터(부품포함)	147	4.7	2.1	9	-29.7	1.7	51	-16.4	1.9
· 보조기억장치	111	6.3	1.6	8	-13.1	1.4	34	-23.5	1.3
· 저장 매체	183	12.8	2.6	9	-39.0	1.7	48	-36.2	1.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0	25.6	1.4	6	-18.3	1.2	38	4.5	1.5
○ 통신 및 방송기기	1,343	6.2	19.2	94	-11.2	17.2	491	-6.1	18.9
- 통신기기	1,305	14.6	18.7	91	-11.3	16.7	479	-5.6	18.4
· 유선통신기기	536	20.9	7.7	42	5.6	7.8	213	8.9	8.2
· 무선통신기기	727	4.4	10.4	46	-23.0	8.4	250	-15.3	9.6
- 방송국용 기기	127	8.4	1.8	10	-3.0	1.8	44	-10.9	1.7
○ 영상 및 음향기기	562	21.7	8.0	38	-14.2	7.0	187	-11.9	7.2
- 영상기기	160	-14.3	2.3	12	-2.0	2.2	53	-20.0	2.0
- 음향기기	183	11.7	2.6	14	-4.1	2.5	63	-10.9	2.4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0	16.6	1.9	6	-49.0	1.0	39	-5.7	1.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166	13.0	31.0	189	1.7	34.7	904	3.0	34.8
- 가정용 기기	612	6.5	8.8	50	-9.2	9.1	239	-9.6	9.2
- 사무용 기기	35	25.8	0.5	2	-16.9	0.4	13	-1.1	0.5
- 의료용 기기	396	9.0	5.7	36	9.1	6.6	167	5.3	6.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7	2.3	4.4	27	10.5	5.0	130	6.8	5.0
- 전기 장비	795	22.2	11.4	72	4.1	13.1	345	10.6	13.3
· 건전지 및 축전지	248	53.8	3.5	26	24.9	4.8	131	47.7	5.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93,456	11.6	100.0	15,271	-1.6	100.0	57,509	-2.2	100.0
○ 전자부품	102,999	13.9	53.2	7,435	-9.0	48.7	29,372	-5.3	51.1
- 반도체	64,471	18.2	33.3	4,614	-5.7	30.2	19,099	-0.5	33.2
- 디스플레이 패널	7,828	2.8	4.0	518	-24.8	3.4	1,808	-22.6	3.1
- 전자관	307	6.8	0.2	23	-10.5	0.1	102	4.4	0.2
- 수동부품	12,360	6.6	6.4	952	-10.4	6.2	3,345	-14.3	5.8
- PCB	4,250	27.4	2.2	274	-15.6	1.8	1,056	-11.7	1.8
- 접속부품	12,783	4.4	6.6	988	-7.6	6.5	3,691	-7.1	6.4
- 기타 전자부품	999	26.5	0.5	66	-37.2	0.4	270	-17.8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562	9.4	8.0	1,319	2.4	8.6	4,886	0.5	8.5
- 컴퓨터	1,168	12.3	0.6	122	48.4	0.8	449	41.2	0.8
- 주변기기	14,393	9.2	7.4	1,197	-0.7	7.8	4,437	-2.3	7.7
· 디스플레이장치	1,242	-7.2	0.6	100	9.3	0.7	410	15.3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68	8.1	5.3	857	-3.6	5.6	3,119	-3.3	5.4
· 보조기억장치	143	-18.8	0.1	11	12.0	0.1	36	-23.5	0.1
· 저장 매체	2,210	30.1	1.1	172	3.7	1.1	672	-6.3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30	11.3	0.3	57	16.5	0.4	200	1.1	0.3
○ 통신 및 방송기기	4,601	-37.3	2.4	421	17.3	2.8	1,588	11.3	2.8
- 통신기기	4,574	10.7	2.4	420	17.5	2.7	1,579	11.3	2.7
· 유선통신기기	1,321	23.4	0.7	165	43.4	1.1	512	29.0	0.9
· 무선통신기기	1,607	-47.5	0.8	157	17.5	1.0	542	-6.8	0.9
- 방송국용 기기	3,568	22.9	1.8	279	12.8	1.8	1,013	3.4	1.8
○ 영상 및 음향기기	9,276	53.9	4.8	993	39.9	6.5	2,798	5.0	4.9
- 영상기기	2,156	-9.4	1.1	173	-3.3	1.1	634	-5.6	1.1
- 음향기기	540	12.0	0.3	48	12.8	0.3	178	12.9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39	-4.0	1.6	495	103.3	3.2	982	13.6	1.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1,017	10.3	31.5	5,103	2.3	33.4	18,866	0.3	32.8
- 가정용 기기	11,948	3.2	6.2	999	1.0	6.5	3,611	-3.2	6.3
- 사무용 기기	413	-0.6	0.2	29	15.5	0.2	130	10.0	0.2
- 의료용 기기	7,675	15.3	4.0	643	13.2	4.2	2,520	11.6	4.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3,497	6.6	12.1	1,941	0.1	12.7	7,245	-0.4	12.6
- 전기 장비	16,166	10.7	8.4	1,365	0.3	8.9	4,918	-2.7	8.6
· 건전지 및 축전지	8,678	12.0	4.5	703	-1.0	4.6	2,630	-3.9	4.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12,548	22.6	100.0	16,740	9.9	100.0	69,899	10.2	100.0
○ 전자부품	66,186	39.1	31.1	5,241	5.8	31.3	20,361	8.7	29.1
- 반도체	53,372	43.1	25.1	4,332	7.8	25.9	16,477	9.7	23.6
- 디스플레이 패널	2,055	7.9	1.0	129	-20.4	0.8	537	-2.4	0.8
- 전자관	159	25.1	0.1	12	-26.4	0.1	40	-11.2	0.1
- 수동부품	1,779	25.9	0.8	125	-5.8	0.7	523	-2.6	0.7
- PCB	1,961	21.1	0.9	134	-8.3	0.8	596	-3.5	0.9
- 접속부품	5,644	25.3	2.7	420	5.3	2.5	1,784	7.3	2.6
- 기타 전자부품	1,216	75.6	0.6	89	13.4	0.5	404	33.3	0.6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3,350	18.9	15.7	2,477	-0.8	14.8	10,817	1.0	15.5
- 컴퓨터	18,232	12.1	8.6	1,348	-0.8	8.1	5,987	0.3	8.6
- 주변기기	15,118	28.2	7.1	1,129	-0.9	6.7	4,831	1.9	6.9
· 디스플레이장치	1,970	3.9	0.9	136	-6.6	0.8	628	-0.7	0.9
· 프린터(부품포함)	4,967	28.0	2.3	310	-3.1	1.9	1,554	1.9	2.2
· 보조기억장치	2,744	12.0	1.3	249	-0.7	1.5	863	-4.5	1.2
· 저장 매체	3,185	102.8	1.5	262	25.4	1.6	1,052	14.8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253	12.7	1.1	171	-19.6	1.0	734	-4.0	1.0
○ 통신 및 방송기기	38,978	5.9	18.3	3,068	14.5	18.3	13,285	9.8	19.0
- 통신기기	38,702	15.4	18.2	3,049	14.7	18.2	13,201	10.0	18.9
· 유선통신기기	10,050	19.8	4.7	760	-2.1	4.5	3,158	3.7	4.5
· 무선통신기기	26,736	6.3	12.6	2,173	23.9	13.0	9,454	13.9	13.5
- 방송국용 기기	3,448	26.7	1.6	317	42.4	1.9	1,230	24.4	1.8
○ 영상 및 음향기기	15,923	29.6	7.5	1,256	25.5	7.5	5,537	22.9	7.9
- 영상기기	6,228	-8.9	2.9	379	-3.7	2.3	1,828	-2.5	2.6
- 음향기기	3,626	10.7	1.7	294	1.9	1.8	1,197	9.8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2,897	33.6	1.4	286	142.2	1.7	1,367	111.8	2.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8,111	19.5	27.3	4,698	14.6	28.1	19,899	14.6	28.5
- 가정용 기기	16,120	5.3	7.6	1,243	8.3	7.4	4,980	5.3	7.1
- 사무용 기기	761	4.8	0.4	65	11.4	0.4	310	22.8	0.4
- 의료용 기기	8,646	15.8	4.1	748	28.6	4.5	3,181	20.4	4.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1,145	13.1	5.2	848	12.6	5.1	3,927	16.2	5.6
- 전기 장비	20,630	35.0	9.7	1,737	14.5	10.4	7,223	17.8	10.3
· 건전지 및 축전지	4,342	52.0	2.0	395	23.2	2.4	1,621	38.9	2.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906	10.3	100.0	223	-15.2	100.0	603	-16.5	100.0
○ 전자부품	2,306	12.3	79.3	176	-15.2	79.3	476	-17.5	79.0
- 반도체	2,101	15.9	72.3	163	-13.6	73.3	438	-15.8	72.7
- 디스플레이 패널	65	-35.8	2.2	4	-34.1	2.0	13	-39.7	2.1
- 전자관	0	-24.8	0.0	0	-67.7	0.0	0	-8.9	0.0
- 수동부품	38	-9.9	1.3	3	-27.2	1.2	7	-29.5	1.2
- PCB	70	6.1	2.4	4	-31.7	1.8	12	-30.6	2.0
- 접속부품	31	2.2	1.1	2	-23.2	1.0	6	-25.3	1.0
- 기타 전자부품	0	-3.2	0.0	0	-23.6	0.0	0	-20.0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9	5.2	8.6	19	-15.3	8.6	52	-11.4	8.6
- 컴퓨터	104	17.5	3.6	8	-6.7	3.6	22	-0.5	3.6
- 주변기기	145	-2.1	5.0	11	-20.6	5.0	30	-18.0	4.9
· 디스플레이장치	6	-7.0	0.2	0	-22.3	0.2	1	-20.2	0.2
· 프린터(부품포함)	4	13.2	0.1	0	-13.4	0.1	1	-12.6	0.1
· 보조기억장치	7	-13.9	0.2	1	-5.1	0.3	2	-12.9	0.3
· 저장 매체	87	-17.5	3.0	5	-41.7	2.4	14	-40.8	2.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70.7	1.4	4	36.8	2.0	12	51.6	2.0
○ 통신 및 방송기기	155	22.1	5.3	13	-4.1	5.7	35	1.4	5.8
- 통신기기	140	24.8	4.8	12	-2.3	5.2	32	3.2	5.3
· 유선통신기기	101	29.1	3.5	9	6.9	3.9	24	14.1	4.0
· 무선통신기기	39	14.9	1.3	3	-22.4	1.3	8	-20.7	1.3
- 방송국용 기기	15	12.4	0.5	1	-20.3	0.5	3	-13.8	0.5
○ 영상 및 음향기기	55	-33.1	1.9	4	-35.0	1.7	11	-36.6	1.8
- 영상기기	49	-35.6	1.7	3	-34.9	1.5	10	-37.0	1.7
- 음향기기	5	-7.3	0.2	0	-37.6	0.2	1	-35.3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1	74.3	0.0	0	-12.5	0.0	0	-2.3	0.0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141	5.1	4.9	11	-17.1	4.7	29	-16.6	4.8
- 가정용 기기	27	2.1	0.9	2	-19.0	0.9	5	-20.0	0.9
- 사무용 기기	8	8.3	0.3	0	-38.1	0.2	1	-26.0	0.2
- 의료용 기기	7	3.9	0.3	1	-15.2	0.3	2	-15.8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5	5.5	1.6	4	-4.7	1.7	10	-6.0	1.6
- 전기 장비	54	6.2	1.9	4	-23.5	1.7	11	-21.7	1.8
· 건전지 및 축전지	13	31.2	0.4	1	-30.5	0.3	2	-24.3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35	6.7	100.0	107	-26.4	100.0	307	-23.8	100.0
○ 전자부품	1,157	7.6	75.4	79	-30.3	73.3	226	-26.7	73.8
- 반도체	1,042	8.8	67.8	71	-30.6	66.1	204	-26.9	66.5
- 디스플레이 패널	15	-18.6	1.0	1	-23.3	1.1	3	-26.7	1.0
- 전자관	0	-5.8	0.0	0	-5.4	0.0	0	-8.8	0.0
- 수동부품	30	-10.9	1.9	2	-39.1	1.6	5	-37.7	1.6
- PCB	42	16.3	2.7	3	-23.9	2.6	8	-17.3	2.8
- 접속부품	26	-5.5	1.7	2	-21.2	1.8	6	-21.1	1.8
- 기타 전자부품	2	-4.9	0.1	0	-31.1	0.1	0	-26.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0.0	6.0	6	-32.6	5.6	16	-32.1	5.3
- 컴퓨터	36	6.7	2.4	2	-28.8	2.0	6	-28.3	1.9
- 주변기기	56	-3.9	3.7	4	-34.5	3.6	10	-34.1	3.3
· 디스플레이장치	7	-9.3	0.5	0	-25.7	0.5	1	-31.3	0.4
· 프린터(부품포함)	4	-4.0	0.3	0	6.4	0.3	1	8.8	0.3
· 보조기억장치	10	-18.9	0.6	1	-9.1	0.7	2	-12.8	0.7
· 저장 매체	25	-5.4	1.7	2	-44.6	1.6	4	-45.8	1.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	29.7	0.7	1	-43.3	0.6	2	-34.0	0.5
○ 통신 및 방송기기	85	1.9	5.6	6	-18.7	5.1	20	-0.4	6.6
- 통신기기	81	6.1	5.3	5	-20.5	4.8	19	-0.5	6.3
· 유선통신기기	25	4.9	1.6	2	-10.1	1.8	6	-9.0	1.8
· 무선통신기기	55	6.6	3.6	3	-25.5	3.0	14	3.5	4.5
- 방송국용 기기	5	-0.5	0.3	0	16.2	0.4	1	0.6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2	-12.6	1.4	2	-21.3	1.4	5	-30.5	1.5
- 영상기기	14	-18.5	0.9	1	-23.2	0.9	3	-35.9	0.9
- 음향기기	6	2.0	0.4	0	-6.4	0.3	1	-11.8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5.1	0.2	0	-35.0	0.1	1	-34.5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79	9.9	11.6	16	1.5	14.5	39	-8.0	12.9
- 가정용 기기	43	6.6	2.8	4	-4.2	3.5	9	-12.5	3.0
- 사무용 기기	2	24.5	0.2	0	-0.1	0.2	0	-15.6	0.1
- 의료용 기기	18	16.5	1.1	2	33.3	1.5	5	23.2	1.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72	6.2	4.7	6	-3.2	5.8	15	-13.5	5.0
- 전기 장비	43	16.7	2.8	4	5.4	3.6	10	-5.2	3.2
· 건전지 및 축전지	17	39.3	1.1	2	49.7	1.6	4	12.3	1.3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22	11,168	-25.6	60,029	22.2	287	-71.4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	2,867	-35.6	4,298	-74.9	63	-72.0
	3/4	2,824	-21.8	3,996	-68.6	90	-61.7
	4/4	3,028	11.9	3,996	-53.1	46	-86.3
	2023.1/4p	2,974	21.4	4,315	-91.0	603	585.2
직접구매 (수입)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22	88,573	35.2	296,493	-18.3	12,724	-37.6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	18,972	50.0	63,235	-4.6	3,107	-25.5
	3/4	20,429	68.9	72,027	26.4	2,997	-21.9
	4/4	24,874	14.8	83,723	-22.6	3,011	-45.6
	2023.1/4p	30,801	26.8	96,196	24.1	3,482	-3.5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022	222.7	328.8	23.6	37.8	121.5	109.4	52.1	72.1	87.1	110.7	157.0	187.9
'22.1월	217.8	294.7	29.4	42.0	123.8	106.5	67.1	88.1	85.8	102.2	151.9	183.0
2월	212.4	286.1	27.1	39.3	118.8	102.1	63.4	83.6	81.3	99.3	151.2	180.6
3월	269.3	360.6	32.5	47.9	136.7	116.8	68.1	90.2	105.0	128.1	180.9	215.8
4월	218.4	294.6	27.8	42.0	128.7	111.1	81.6	106.5	87.0	105.8	153.7	179.0
5월	236.4	319.6	26.1	40.5	130.4	113.3	69.3	90.8	71.1	87.4	159.6	187.0
6월	255.3	347.7	20.4	33.3	124.5	109.2	56.1	75.6	73.7	94.4	148.6	180.6
7월	234.0	344.8	22.5	37.0	125.9	110.4	38.7	51.8	73.6	95.4	148.9	175.6
8월	227.7	339.8	21.9	36.6	122.5	108.8	33.8	46.3	82.8	107.1	152.8	185.0
9월	243.7	373.0	18.1	31.2	122.9	109.5	43.1	60.8	102.0	133.9	171.4	208.0
10월	191.7	332.4	19.2	33.1	114.5	102.9	33.8	51.6	108.7	142.4	155.6	185.4
11월	177.6	312.3	18.4	31.5	108.4	115.6	27.9	42.6	101.5	135.6	150.1	179.7
12월	188.0	335.9	19.1	32.6	101.3	108.0	42.7	65.2	72.2	96.4	159.9	193.6
'23.1월	122.4	237.7	15.8	27.3	98.5	104.8	22.4	34.2	84.6	113.1	127.7	151.6
2월	122.9	244.5	17.5	30.3	92.3	98.4	21.4	33.7	67.3	89.5	143.3	171.5
3월	177.0	358.0	17.7	30.2	112.0	119.4	29.5	46.5	65.2	86.4	152.3	182.1
4월	128.8	290.8	17.8	29.9	94.7	100.7	20.5	32.3	63.2	83.7	134.6	157.0
5월	152.0	345.4	19.8	32.7	109.4	116.4	29.2	47.3	70.5	93.1	142.7	166.6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022	204.2	298.7	35.2	51.9	131.2	137.5	171.4	178.0	135.2	167.3	144.5	144.9
'22.1월	187.8	263.0	46.4	51.4	137.2	140.9	239.5	243.6	127.7	152.2	135.4	132.4
2월	180.3	252.5	41.2	48.0	121.0	124.0	182.9	186.1	120.1	142.9	131.0	126.8
3월	197.5	276.5	37.9	45.9	138.2	141.8	194.3	199.2	154.8	184.6	150.8	146.1
4월	186.1	261.6	37.1	47.0	138.9	142.8	172.8	178.2	137.3	167.7	150.6	146.4
5월	196.7	277.8	38.2	52.0	136.4	143.8	166.4	172.3	142.8	176.6	141.9	140.0
6월	218.6	309.2	33.6	50.0	141.0	148.9	145.1	151.1	126.8	156.5	148.5	147.9
7월	220.4	327.0	28.5	44.9	135.5	143.7	170.6	178.5	122.9	151.7	149.1	149.8
8월	220.6	328.2	35.0	58.4	132.5	140.5	148.3	154.1	156.6	195.8	143.8	145.8
9월	216.0	323.9	31.8	55.5	132.3	140.6	183.8	193.4	121.1	152.0	135.5	138.3
10월	215.7	337.9	30.8	55.4	130.8	137.7	153.7	162.4	206.4	260.4	142.2	146.3
11월	224.8	346.2	30.2	55.2	119.9	126.1	154.5	162.1	107.2	137.8	141.6	148.3
12월	186.3	285.2	31.3	58.4	110.9	117.3	144.6	150.6	98.8	127.1	163.6	169.6
'23.1월	168.1	264.0	38.9	73.6	117.0	123.2	209.2	216.3	153.6	198.2	153.1	156.6
2월	160.3	252.8	32.1	60.6	104.7	109.3	203.4	209.1	109.9	143.2	121.4	123.9
3월	177.0	283.3	43.1	80.3	115.3	120.4	157.1	160.9	111.1	145.2	150.1	153.5
4월	155.5	258.4	36.7	67.5	102.4	107.8	122.5	125.8	100.0	129.6	143.7	146.5
5월	164.6	278.2	30.5	55.7	103.8	109.1	130.3	133.8	104.3	135.5	136.8	140.1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총괄 책임 임진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정책단장)

과제 책임 허창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장)

참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조성선, 이효은, 도승희, 고은영, 유영신, 반치호, 최동렬, 임양섭,
장예지, 김채리, 김도현, 윤종혁

위촉연구원 최경석, 이유리, 이유경

월간 ICT 산업 동향 2023-7호

발 행 일 : 2023년 7월 31일

저 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발 행 인 : 전성배(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발 행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전 화 : 042) 612-8240, 팩스 : 042) 612-8209

홈페이지 : www.iitp.kr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